

2017학년도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워크숍

일시 2017. 2. 27(월)

장소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Amber Room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 ■ ■ 목 차 ■ ■ ■

I. 워크숍 일정	7
-----------------	---

II. 특 강

- 인공지능시대 인문학의 역할 (감동근, 아주대학교 교수)	11
--	----

III. 토 론

- 2주제: 「바람직한 인문학 교육 및 학생 진로」.....	35
(박만규, 아주대학교 인문대학장)	

IV. 참고 자료

[자료1]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사업	61
[자료2]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69
[자료3] 교양교육의 짧은 역사, 기초학문의 위기, 교양교육의 나아갈 방향	111

I

워크숍
일정

I.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워크숍 일정

특 강	
15:00~16:00	「인공지능시대 인문학의 역할」 감동근(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토 론	
16:00~18:00	1주제 : 「교육부의 인문학 관련 사업(교육, 연구, 산학협력)」 - 국고재원지원사업 통합, 학사자율화정책, 고등학교 문과 · 이과 통합 이숙향(원광대학교 인문대학장)
	2주제 : 「바람직한 인문학 교육 및 학생 진로」 - 인문대 교육과정, 교내 인문(교양)교육, 교육방식과 교육환경의 구조적 개선 박만규(아주대학교 인문대학장)
	3주제 : 「평 가」 - 인문대학의 학과평가: 교육부 및 언론사의 평가기준 및 개선방향 - 인문대학 교수의 업적평가방식 심치열(성신여자대학교 교수)
	4주제 : 「종합토론」 - 회원교 간 협력 방안 등 발표 및 진행 : 박만규(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장)
18:00~	만찬 및 친교의 시간

III

특 강

- 인공지능시대 인문학의 역할
(감통근, 아주대학교 교수)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 (1)



카스파로프 vs 딥블루(1996, 1997년)

개리 카스파로프

- 1963년 러시아 출생
- 1980년 그랜드마스터
- 1985년 세계 챔피언
- 2005년 은퇴할 때까지
228개월 중 225개월간 세계 랭킹 1위
- 역대 최고의 체스 선수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 (2)

2011년: 왓슨이 <제퍼디> 퀴즈쇼 우승

켄 제닝스

역대 최다(74회)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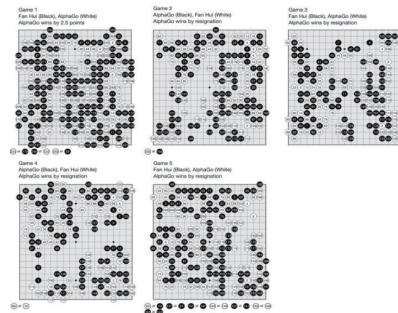
브래드 러터

역대 최고(446만불) 상금

제시어: 문학에 등장하는 지명수배자 (Literary character APB)

Q. 전면적인 사악함으로 수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랏두르의 탑에서 목격됐지요.
거대한 눈이라서 놓치기 어렵습니다. (Wanted for general evil-ness;
last seen at the tower of Barad-dur; it's a giant eye, folks. Kinda hard to miss.)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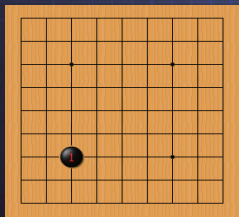


-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가? 지능을 갖췄는가?
▶ 튜링 테스트
- KGS 6-9단 기보 16만 건으로 학습



바둑 인공지능 “수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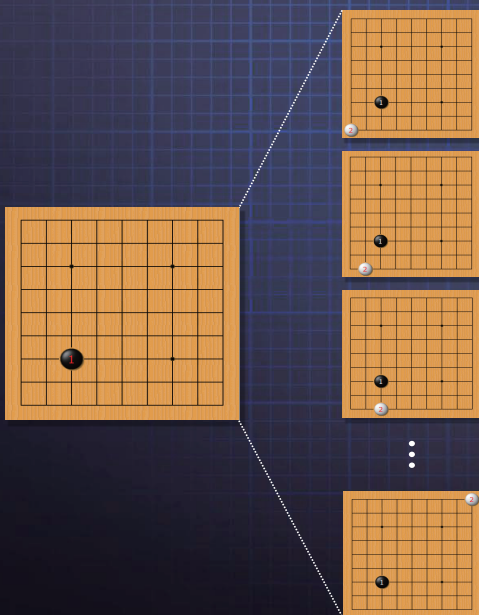
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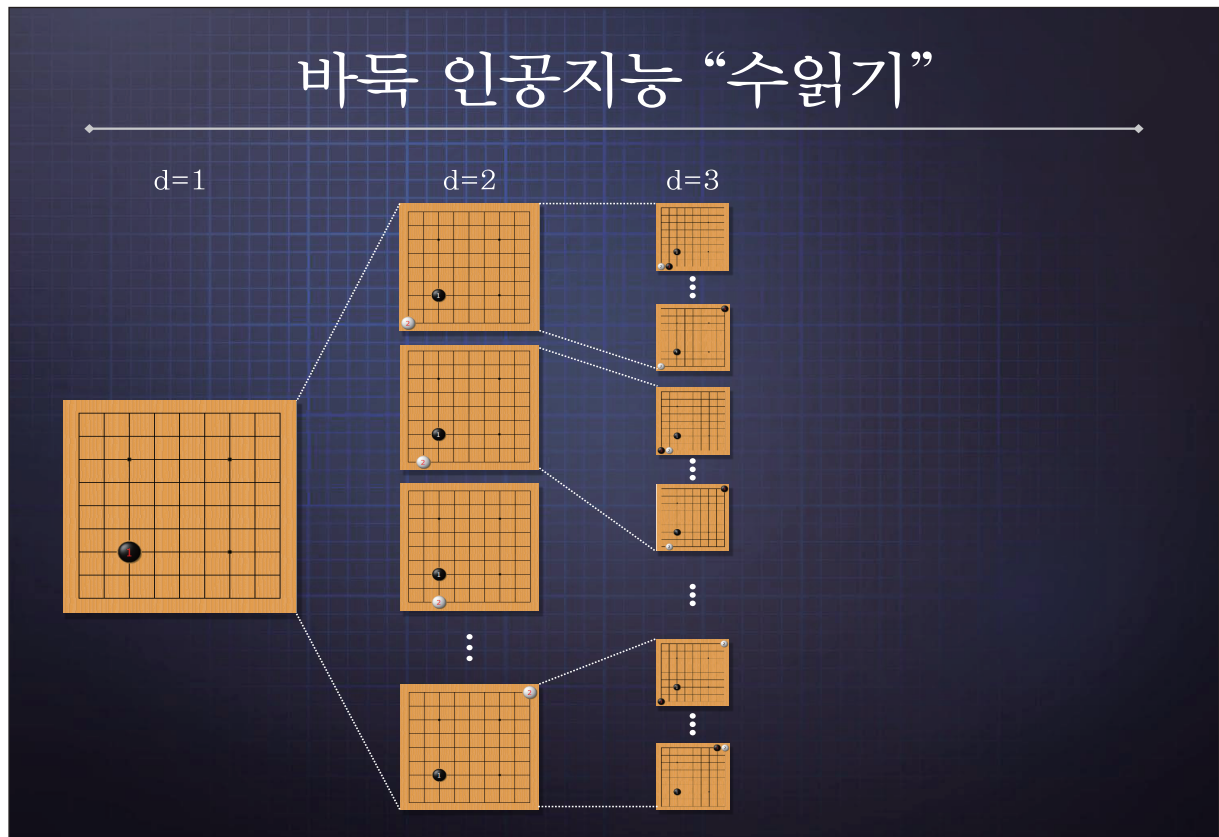
바둑 인공지능 “수읽기”

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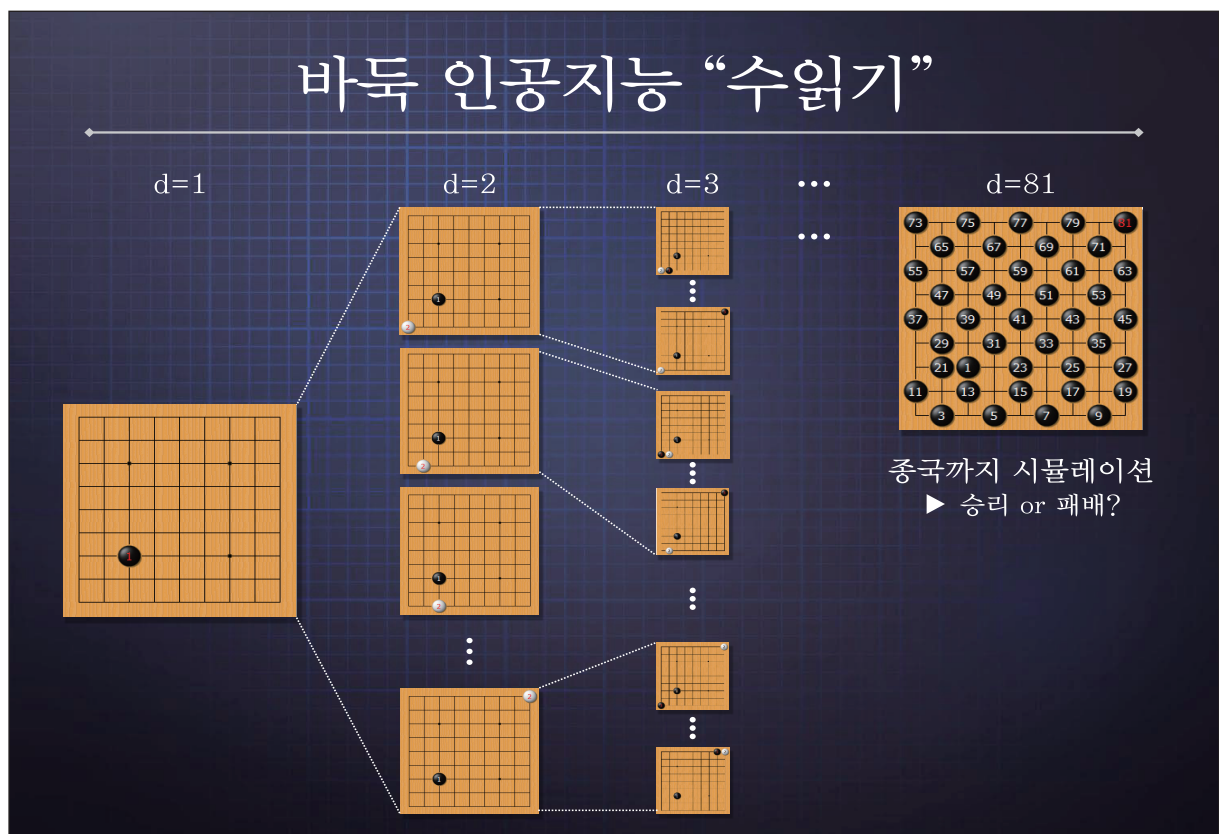
d=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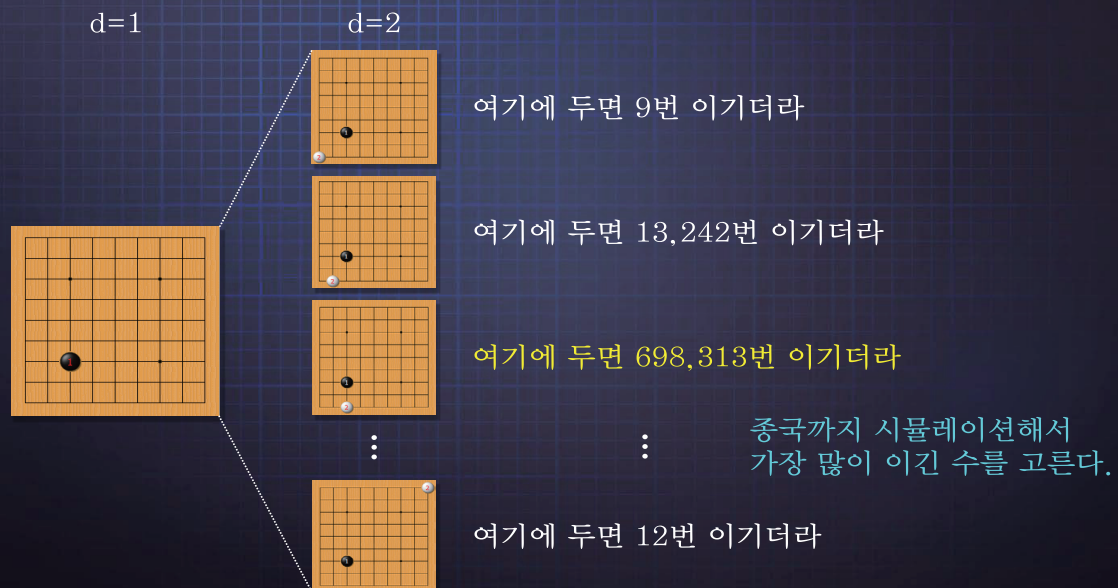
바둑 인공지능 “수읽기”



바둑 인공지능 “수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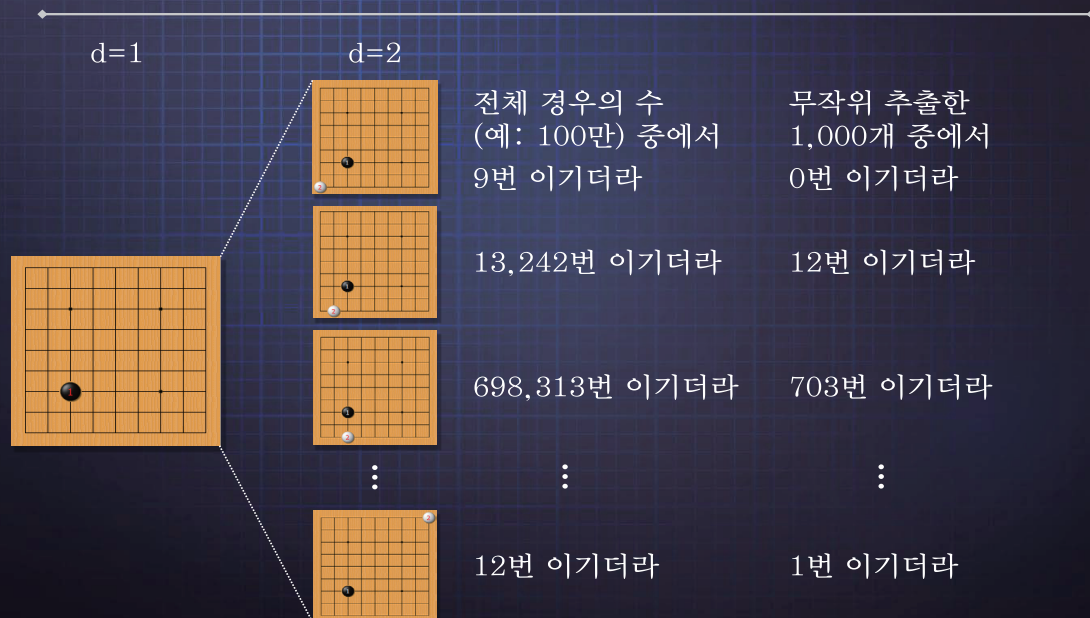
Brute-Force Tree Search (무차별 탐색 기법)



Monte Carlo (몬테카를로)



Monte-Carlo Tree Search (몬테카를로 탐색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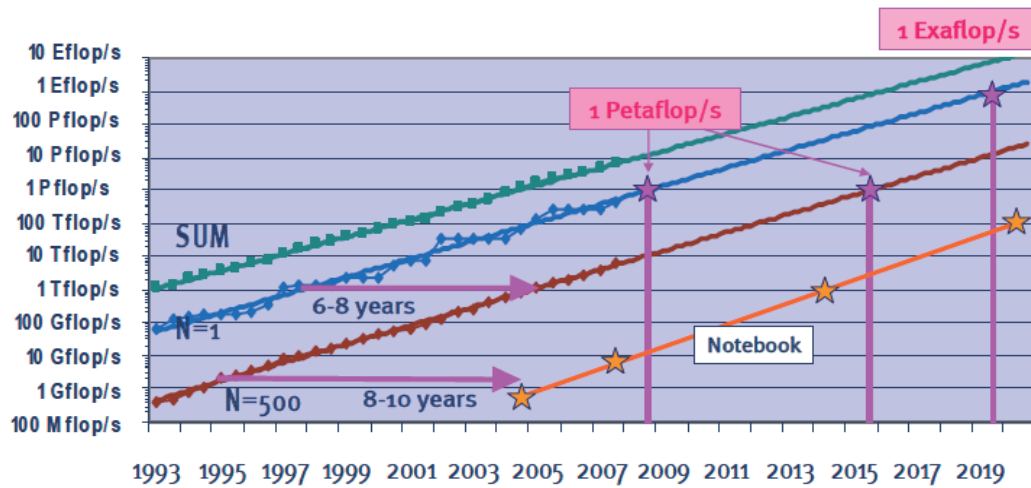


딥블루와 알파고의 비교



- 1997년 6월 기준, 딥블루는 세상에서 259번째로 빠른 슈퍼 컴퓨터였다.
- Performance = 11.4 GFLOPS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



딥블루와 알파고의 비교



- 1997년 6월 기준, 딥블루는 세상에서 259번째로 빠른 슈퍼 컴퓨터였다.
- Performance = 11.4 GFLOPS



Galaxy S6:
34.8 GFLO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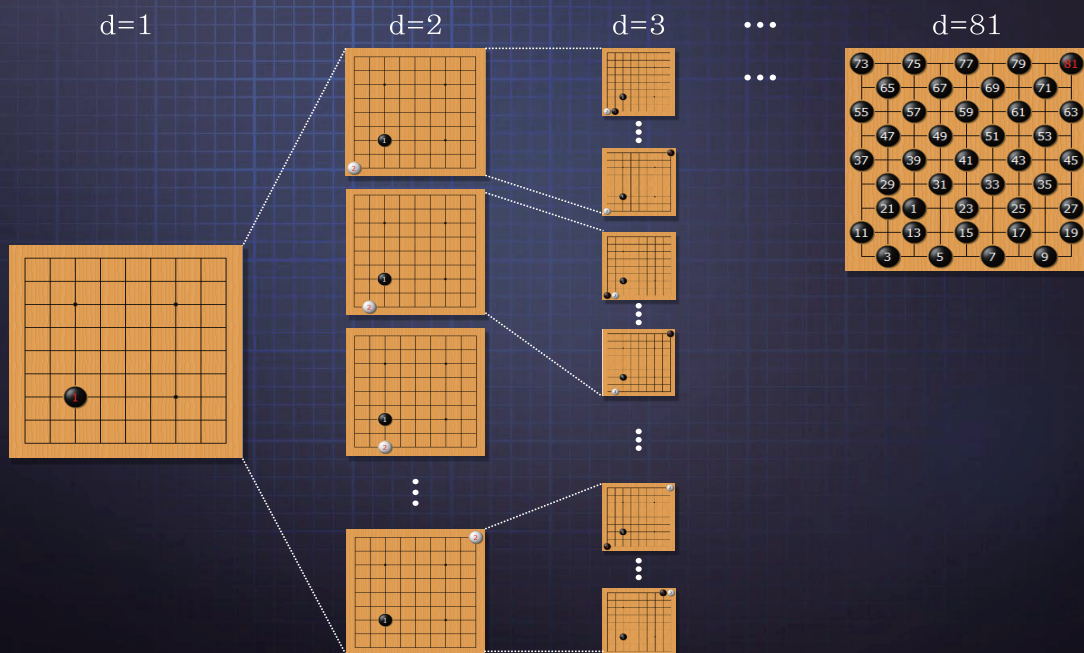
GeForce GTX960:
2400 GFLO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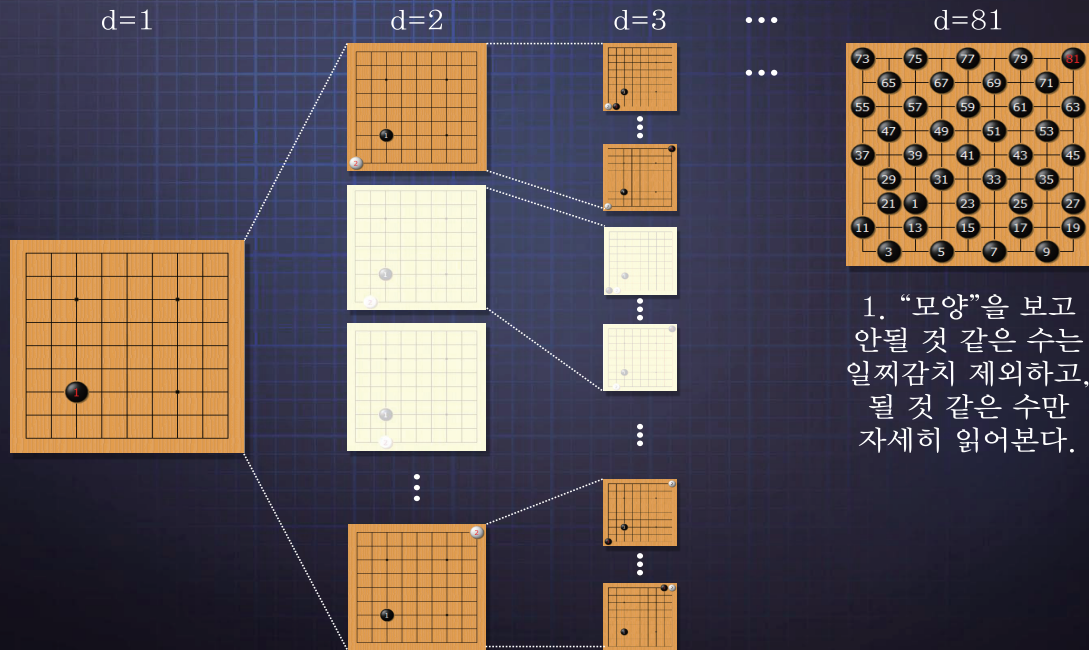
알파고 (작년 10월 기준):
1202 CPUs + 176 GPUs

그러나,
바둑의 경우의 수는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다!

탐색 공간을 어떻게 줄일까?



사람은 수읽기를 어떻게 하나? (1)



바둑 = 수읽기 + 감각(모양을 이해하는 능력)



“바둑은 모양이 좋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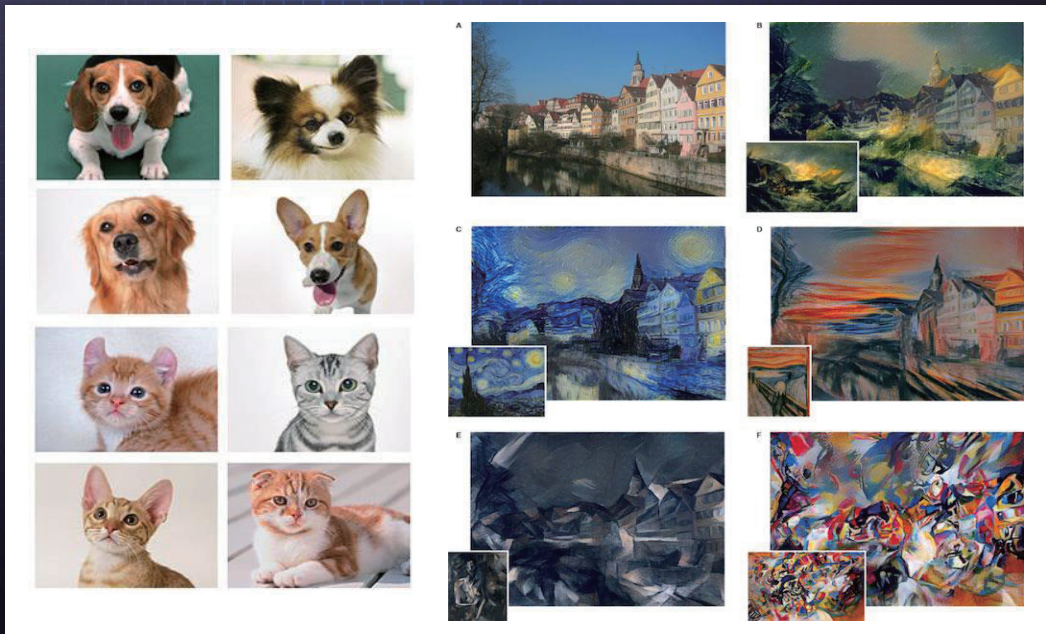


“모양 나쁜 수를 두느니
판을 앞겠다!”

십대일 다면기



딥러닝 (Deep Learning)



인공 신경망과 학습 이론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알파고의 인공 신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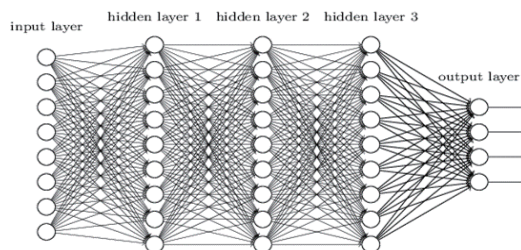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1 1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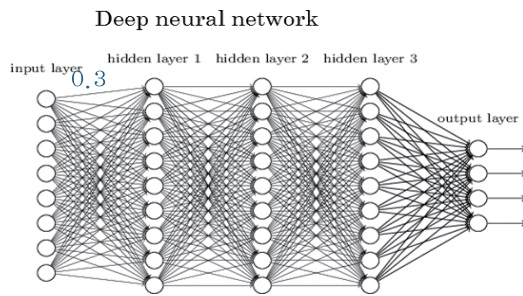
Deep neural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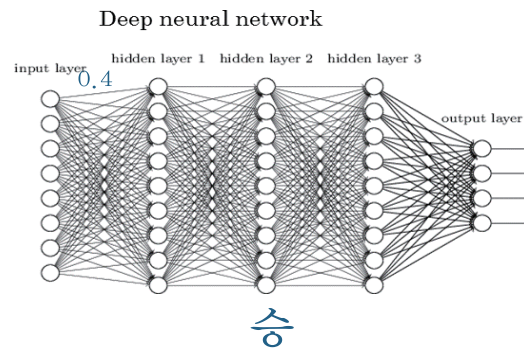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지도 학습의 결과 (original ver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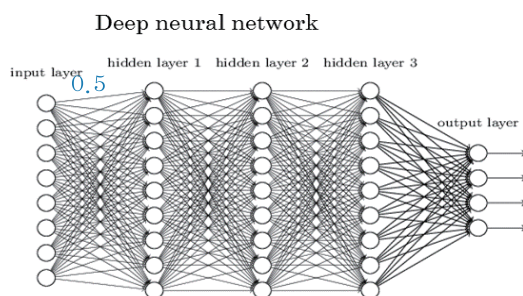
약간 변형된 신경망 (rev.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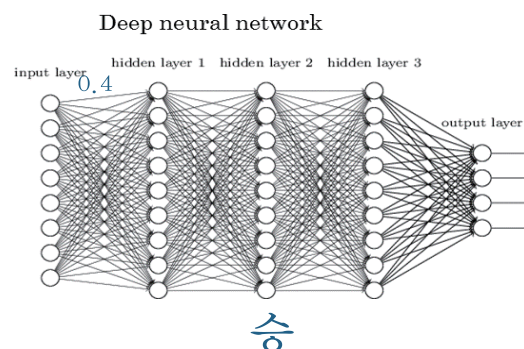
VS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약간 변형된 신경망 (rev. 2)



약간 변형된 신경망 (rev. 1)



VS

지도 학습의 결과 (original version)

강화 학습의 결과 (rev. 1,000,000)

80% 승률

‘세기의 대결’ (알파고 vs 이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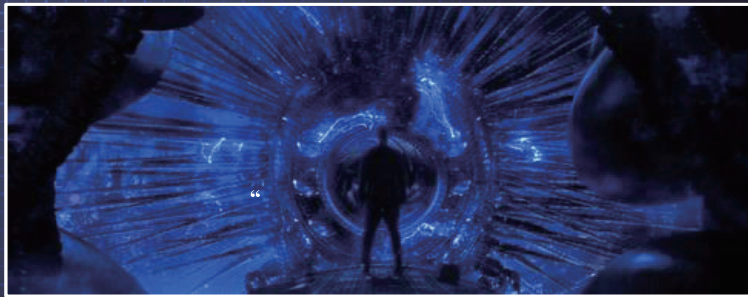


‘세기의 대결’이 남긴 것

- 직관이라는 것은 과연 인간 지성의 엄청난 능력인가?
- 알파고에게 과연 ‘바둑 두는 지능’이 있는 것인가?
 - 내일 당장 20줄 바둑판에서 다시 대결한다면?
 -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스튜어트 러셀 & 피터 노빅,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고 새처럼 날갯짓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컴퓨터가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가?”
 - 〈괴델, 에셔, 바흐〉 더글러스 호프스태터,
“그래서 우리가 카스파로프의 두뇌가 체스를 어떻게 두는지
조금이라도 더 이해했는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 (God from the Machine)



“체스에서 이제는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창의적(creative)이다.”

“창의적인 체스 플레이란 일반적인 진행(conventional move)에서 벗어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느냐의 문제다.”

“지난 10년 간 인간이 (체스) 컴퓨터와 맞서는데 유일하게 성공적이었던 방법은, 컴퓨터의 창의력을 제한하기 위해 단순한 길로 이끄는 것이었다.”

알파고의 성취가 시사하는 바

• 바둑의 특징

- 게임(과제)의 목표와 규칙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
-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할 요소가 모두 판 위에 공개돼 있다.
-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 전문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 있다.

• Toy problem vs. real-world problem



인공지능의 우선 활용 분야

- 통계적인 성능이 높으면 되고, 실수가 치명적이지 않은 분야
 - 바둑, 체스, 퀴즈
 - 의료? 교통?
- 언어처리가 필요 없는 분야
 - 재무, 유통, 생산
-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
 - 네이버 본문 듣기, Tmap



“프로를 두 점 접을 수 있을 것 같다” (7월)



프로 기사의 역할?



스토리가 필요하다



프로 기사의 인간적인 면이 지금보다 훨씬 더 드러나야 한다.
그러면 바둑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준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팬들이 인공지능의 바둑보다는 인간의 바둑을 보러 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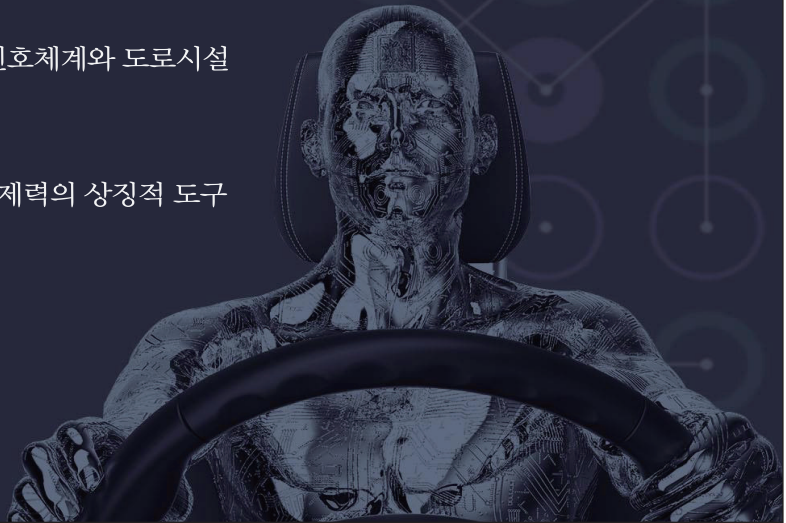
팬들 속으로 들어가야



“앞으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대중화의 과제

- 기술적 과제
 - 갑작스러운 동물의 출현, 눈/비...
 - '유연한 판단'
 -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신호체계와 도로시설
- 사용자 수용성
 - 자동차는 자유/독립/통제력의 상징적 도구
- 프라이버시
- 해킹/테러 위험



Hackers Remotely Kill a Jeep on the Highway



<https://www.youtube.com/watch?v=MK0SrxBC1xs>

최적의 충돌 알고리즘



인공지능 시대의 삶의 방식

- 사람의 판단과 행동이 언제나 합리적이지도 않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지도 못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우연과 무작위, 그리고 무지의 장막으로 보호되어왔다.
- 우리의 삶은 알고리즘의 세계로 변환되고 있다.
- 인공지능에게 수고로운 절차를 맡기는 것일 뿐, 윤리적 딜레마와 같은 어려운 문제는 결국 사람이 고민하고 풀어야 한다.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아직까지) 잘 할 수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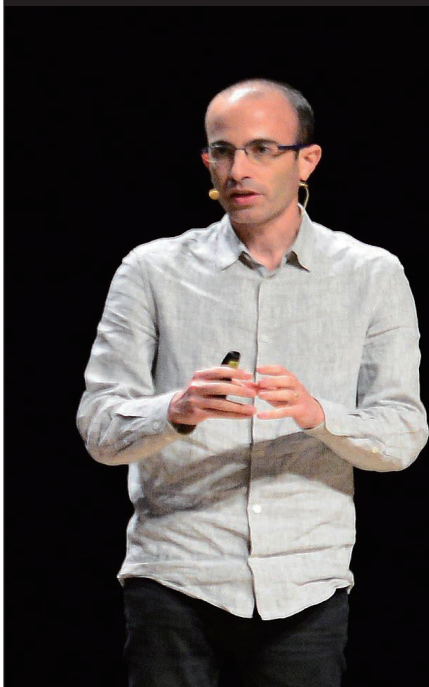
- 모라벡의 패러독스

- <https://www.youtube.com/watch?v=g0TaYhjpOfo>
- 물리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간과 교감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

-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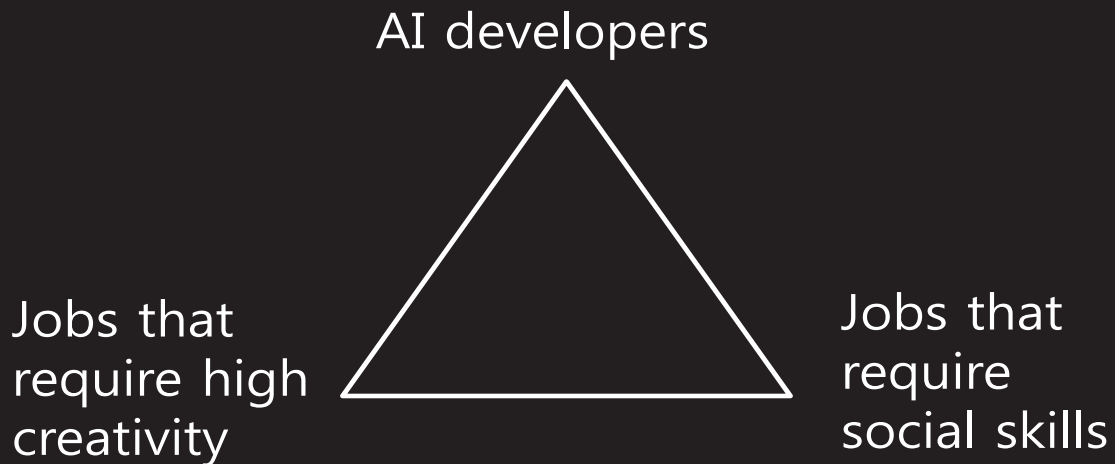
- 2-3개를 융합한 분야에서는?
- 신경망의 규모: 10^5 vs 10^{11}
- 에너지 효율이 관건
- 과학 발견의 단계: 티코 브라헤 → 케플러 → 뉴턴
- 연결주의 → 유전 알고리즘 등

급변하는 지식 체계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80~90%는 이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전혀 쓸모 없을 확률이 크다. 어쩌면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연장자에게 배운 교육 내용으로 여생을 준비하는 게 불가능한 역사상 첫 세대가 될지 모른다.”

AI-proof Jobs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 | 상상력(想像力)과 창의력, 질문할 수 있는 능력
- |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 | 경쟁보다 협업
- |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





감사합니다.

III

토 론

2주제: 「바람직한 인문학 교육 및 학생 진로」
(박만규, 아주대학교 인문대학장)

인문학 교육 개편 방향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박만규(아주대 인문대학장)

본 발표는 2016.12.6.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비교문화연구소, 국제지역연구원 공동 주최의
「인문학의 미래 - 학문적, 제도적 개편방안」 자료집에 수록된 '인문학 융합 교육/연구 경향' 발표문을 수정한 것임

<목차>

- I. 서론
 - 1. 환경 요인과 대처의 기본 방향
 - 2. 인문학과 인문대학 현황
- II. 교육/연구 사업 현황
 - 1. 지역학
 - 2. 응용인문학
 - 3. 인문학 중심 융복합
- III. 교육방식의 개편
 - 1. 학부 교육방식의 개편
 - 2. 전공인문학 교육 모델 정립
 - 3. 연구 역량 강화
- IV. 문제점
- V. 결론

I. 서론

1. 환경 요인과 대처 방안(1)

1. 학령 인구 감소 :

- 학생의 질 저하, 재학생 충원 문제(전공 적응, 중도 탈락 등 포함)
→ 학교 브랜드 가치 제고 필요

2. 학사 전면 자율화 정책(고등교육법 시행령)

- '융합전공'(복수의 학과가 편제 정원 없이 새롭게 개설하는 전공) 개설과 선택이 자유롭게 되어,
학생은 원 전공이 아닌 융합전공만 이수해도 졸업이 가능
- 비인기학과(ex: 인문대의 전통적 전공)를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게 될 우려
→ **교육과정/방식 개편 및 이의 홍보를 통해 우수학생 유치**

1. 환경 요인과 대처 방안(2)

3. 2018년 고등학교 문과·이과 통합

→ 신입생 모집 단위 구분 문제, 전공 기초역량 문제

4. 저성장, 저고용 시대의 취업률 압박

→ 교육과정/방식 개편을 통해 취업률 제고
(홍보를 통해 취업률 향상의 조기 달성)

환경 요인과 대처 방안

5. 4차 산업혁명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or > 기존의 일자리 파괴
Utopia or Distopia?
- 사라지는 일자리는?
→ 계량화 가능한, 반복적 업무
- 새로운 일자리는? 특히 인문학도를 위한 일자리는?
→ 계량화 불가능한, 창의적 업무
i.e. 새로운 가치 창출, 중요한 판단, 감성
- 교육 방향은?
→ 오직 융합? or 전공능력과 함께?
- 진로상의 기회는?
거대기업(IBM, Google, MS, Facebook, Amazon etc.)은 AI 플랫폼 구축, API 제공
- 개인은 플랫폼상에서 비즈니스 결합
→ 인문학도의 취창업 기회 확대

2. 인문학과 인문대학 현황

➤인문학의 정체성 - 인문학은 무용한 학문인가?

- 연구와 취업 부문

1. 연구 : 인문학과 타 학문간의 융·복합 연구 증대

➤왜 인문학인가?

- 비판정신에 기반한 창의적 사고의 획득 : 인문학적 사유
(ex. 정보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 모든 시스템, 기기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인문학적 지식
(ex. 기술이 야기하는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의 해결)
- 인문학도 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
- 그러나...

2. 취업 : 위기!

- 산업계, 특히 대기업에서 인문대생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기 때문
Cf. 구글과 애플 등 정보기술업계에서는 많은 인문학 전공자를 채용
- 금융, 서비스업 중심인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제조업 중심
- 향후 서비스업 비중확대로 인식 전환
- 문화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인문 콘텐츠가 중요해짐
- 그러나 콘텐츠의 낮은 부가가치?

→ 인문학의 위기가 아니라 인문대학의 위기

➤인문학 교육의 현황

- 학생의 요구 :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 기업의 요구 : 실용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
- 대학이 제공하는 인문 교육/연구 : ?

➤인문학 전공자의 취업 현황

- 역설적 상황 : 학생들은 구직난, 기업인들은 구인난
- 괴리의 원인 : 학생들은 대기업 선호, 기업은 현장의 능력 요구
→ 인문학적 사유역량 + 현장에 대한 지식 접목 교육을 강화해야

➤사회(국가)와 기업(시장)의 요구와 학문/교육의 원칙 사이의 절충점 모색 필요

II. 교육/연구 사업 현황

1. 지역학

- 기반 : 학부 교육, 연구소, 대학원, 대외 네트워크
- 하위 전공 : 국제통상, 개발협력
- 운영 방식 : 사전 교육 - 현장 교육 - 보고 - 평가 - 성과공유
 - ✓사전 교육 : 계획서, 발표; 교과목화
 - ✓평가 : 보고서, 대사관 방문
 - ✓성과 공유 : 포트폴리오 경연대회, 홍보

➤현장교육(해외 현지 파견) 모델

- 단체 파견 :
 - ✓현지정부 기반 모델 :
 - 대사관 협정, 본국 관리 초청 & 강연, 준비, 귀국 보고(대사관 방문 포함), 인턴십
 - ✓현지대학 기반 모델
 - ✓본교 주도 모델
- 개인 파견 :
 - ✓안전 문제, 사전 교육(강의, 발표), 기획 관리,

➤ 운영상의 난점

- 어문학 교수 외에 정치, 외교, 통상, 경제, 역사, 보건, 토목... 등의 교강사 필요

→

- 1) 교수계발
- 2) 코이카, NGO와의 교류
- 3) 국제(대학)기구 가입 ex) AUF

- 학생들의 관심, 참여 의지 아직 부족

➤ 지역학 사업의 문제점

- 전문가? : 학부 교육만으로?

- 취업은? :

✓ 인력고용 관행

하위직=언어(학부)

중고급직=전문분야 전공자의 언어연수 모델

- 인턴십/취업 자격요건 갖춘 학생 실제로 소수

∴ 지역학 역량 이전에 언어능력이 기본 전제

2. 응용인문학

- Digital Humanities
- Translational humanities
- Open humanities
- Public humanities

➤ Digital Humanities (디지털 인문학)

- 빅데이터의 인문학적 분석
- 디지털화된 인문 데이터를 IT(VR, AR 등)에 접목 : 시각화 등
- 해외 대학원
 - UniversityCambridge 대학의 King's College의 디지털휴머니티학과(Department of Digital Humanities),
 - 캐나다 University of Alberta의 Department of Humanities Computing
 - 일본 Ritsumeikan 대학원에 DH 신설
- 대학원에 정규과정으로 개설된 DH학의 수가 아직 많지 않지만
- 현재 대학원 협동과정이나 연구센터의 형태로 디지털인문학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조만간 대학원 학과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2013년 현재 해외에 192개의 연구기관이 다양한 디지털인문학 연구프로그램 운영
- 북미권에서 Stanford University의 Stanford Humanity Center를 비롯해 많은 대학들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센터 및 대학원의 Major, Minor Degree Course를 설립

➤DH 교육 & 연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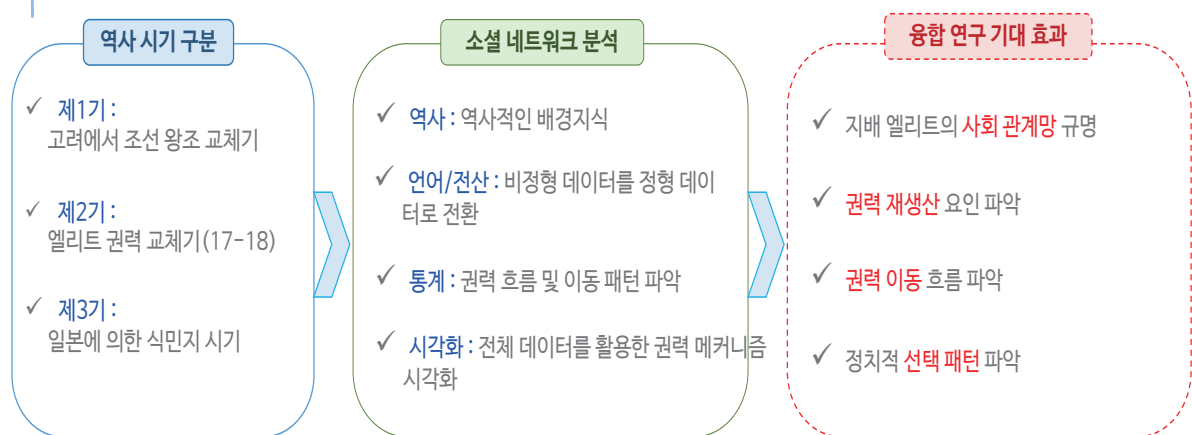
- 연구소 : DH연구센터 – 역사융합연구센터
 - 수행연구 : ‘빅데이터’분석 기반 한국사 권력 메커니즘
- 학부교육 :
 - DH교육(연계전공, 부전공)
 - SW중심대학 (영문, 사학과 대상 인문사회데이터분석연계전공),
 - SCSC 프로그램 운영
- 대학원 교육 : DH융합학과 (DH전공, 의료인문융합전공)

‘빅데이터’분석 기반 한국사 권력 메커니즘

01 기존의 역사 연구 방법론과 장단점

- ✓ **실증적 연구 방법론** : 사실, 기술 자료를 세세하게 해석하고 기술하는 연구 방법론
- ✓ **소규모 자료 분석과 횡단면적 연구**에는 유용하지만 **방대한 자료 분석과 종단면적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음.

02 본 역사 연구팀의 연구방법



3. 인문학 중심 융복합

➤CORE 사업 :

- 데이터사이언스, SW와의 융합 :
인문데이터과학(서울대), 인문콘텐츠융합SW(서강대), IT/문콘(경북대), 인문IT공학(계명대) 등
- 경영학과의 융합 :
인문경영(이대), 글로벌 인문경영(G-Humanage, 가톨릭대) 등
- 인문+예술+미디어 : 문화콘텐츠 (이대), 예술+광고
- 인문카운슬러(경북대)
- **의료인문학 : 아주대(비선정)**

Cf. 의료인문학 융복합 연구

고령화 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한 디지털 품앗이 사업
(의료인문학+문화콘텐츠+데이터사이언스)



• 융복합 교육의 문제

1) 학부과정에 적합한가?

- 두 분야에 대한 탄탄한 지식 없이는 경쟁력 없음, 대학원에 적합

2) 사회적 수요 미검증

- 단순 융합 이전에 사회적 수요 조사 필요(cf. 계명대)

1)의 대안 :

- 학과 설치보다 교육과정 신설의 유연화 : 트랙,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III. 교육방식의 개편

1. 학부 교육방식의 개편

- 창의력은 인문학의 전유물인가?
- 인문학만 배우면 창의력이 저절로 생기는가?
- 창의력은 인문학적 지식이 아니라 인문학적 사유에서 나온다.
- 따라서 교육방식을 개혁해야 한다.

- 기업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원한다?
 - ✓ 비인문학도에게 원한다.
 - 비인문학 전공 학생들에게 교양인문교육 강화 필요
- 인문학 전공 학생들에게는?
 - ✓ **전공역량 + 현장역량**(업무도구 운용능력, 응용력, 창의력) + **융복합능력**
- 인문학전공자가 현장역량, 융복합능력 갖춘다면 더 좋음.
 - Cf. 복수전공자 취업률 10%상승 통계

현 교육과정 편성(핵심역량 관련)

- (모국어)소통능력, 창의력 : 비판적 고전읽기 교육(학부기초),
- 외국어능력 : 제 2외국어, 한문 (학부기초)
- 업무도구운용능력 : SW (학부기초),
- 현장 역량 : 통상, 개발협력 관련 과목(전공, 트랙), 인턴십 과목 (전공)
- 융복합 역량 : 트랙, 연계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 현장 역량의 강조와 이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복수전공 포함)은 전공교육의 비중 축소와 이에 따른 부실화를 초래하지 않는가?

→ 전공이수 학점의 적정성 논의가 필요

- 대안은?

- 졸업학점 확대

- 아니라면

- → 비교과 교육으로

- → 교육방식 개편으로

교육방식 개편 방향

(1) 세미나식 수업 + 지도교수제 운영의 개선 : 도제식 교육

(2) 포트폴리오 제작 : e-Port Folio site 운영

(3) **Capstone Design**, Flipped learning, PBL, TBL 과목 확대

(4) 클라시쿠스(文, 史, 解 영역별 비판적 고전 읽기 교육) 개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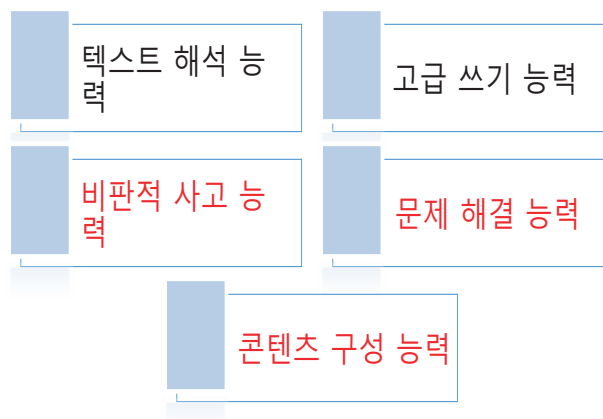
고전의 현재적 의미 분석, 현실 문제와 결부 교육

- 사유의 힘, 비판정신, 창의력...
- 완독, 토론(현재적 의미), 리포트, 소논문
- 우수 소논문 선정을 통한 우수학생 시상 확대
- OT 공유, 성과 공유

(5) 도전학기 참여율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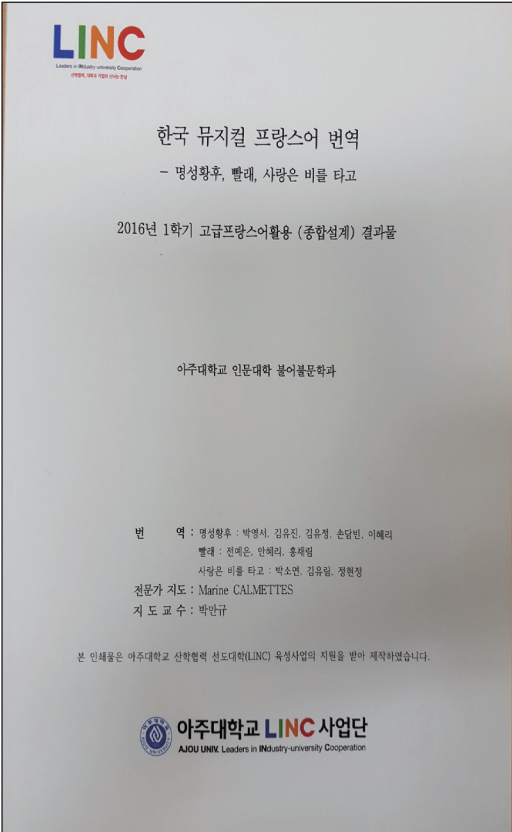
(6) 비교과 : 학부생연구사업(UR)

고전교육에서 기대하는 전공인문학의 핵심 역량



캡스톤디자인(LINC) 사례

- 국문 : 방언과 사회, 산학협력전공실습
- 영문 :
 - 영어학개론2
 - 미문학사
 - 영어교재연구및지도법
 - 번역연습
 - 영미문학과 영화
- 불문 :
 - 프랑코포니 세미나
 - 고급프랑스어활용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보고서의 예

산학협력전공실습(출판 콘텐츠 개발 실습) - 아주대 국문과

- ▶방학 중 출판, 편집 관련 외부 전문가 특강 실시
- ▶학기 중 책의 기획, 집필, 편집, 디자인, 제작 과정 참여
- ▶결과물

- 1조: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 대학생활 가이드

아주대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을 독자로 상정하여 공항에서 수원으로 오는 방법부터 방 구하기, 수업 듣기, 친구 사귀기 등의 생활 노하우와 방학 중의 한국 즐기기 노하우를 사진과 함께 소개

- 2조: 조곤조곤: 지극히 평범한 20대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20대 대학생들의 고민을 자전적으로 쓴 단편소설집.
국문과 박사과정 학생의 비평문도 함께 수록

- 3조: 뭉치면 살고 흩어져도 잘 산다.

최근의 트렌드인 혼밥(혼자 밥 먹기), 혼술(혼자 술 마시기) 문화에 대한 에세이집

<북판다의 다음 책>



함께하면 짱 재밌게 산다

혼자를 즐긴 다음은 '함께!' <뭉치면 살고 흩어져도 잘 산다> 그 다음 책. 빠르게 집필중



(작가소개)

윤병호 정형주 조윤정 조은영 씀



8 85909 51226 3 값 13,000원

북판다

BOOK
BOOKTALK

➤ 도전학기

- 정형화된 주입식 ‘교육의 틀’ 극복 필요성 대두
- 자기주도적 진로역량 강화 목적
- 자신감 있고 주체적인 인생 설계 및 삶의 도전 정신 강화
- 사회가 요구하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모험과 도전의 계기

2. 파란학기제란?

아주대 도전학기제 소개

내가
만드는
대학

파란(Blue) 파란(破卵) 파란(波瀾)



- 학생이 자신만의 도전과제를 **스스로 설계**
- **자기주도성**, 창의성, 교육적 성과, 기존 교육과정과의 차별성 있는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교육과정

특징

- 상시 및 특별 **컨설팅** 진행으로 도전과제 계획 수립 완성도 제고
- 도전과제 수행을 **학점**으로 인정(교양선택, 전공선택 과목)
- 밀착지도를 위해 도전과제별 **지도교수** 선임 및 **외부전문가** 연계 지도
- 도전과제 **지원금** 지급

2. 파란학기제란?

대학의 지원

- 파란학기제 전용 공간 지원
- 외부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적극 연계
- 우수활동 학생 및 지도교수 시상
- 중간교류회, 성과발표회 등 관련 행사 진행

지도교수

- 도전과제 내용의 지도 및 조언
- 보고서, 결과물, 예산 사용 점검 및 평가
- 학기말 성적 부여
- 파란학기제 활동증명서 작성

참여 학생

- 도전과제 진행 및 보고서 제출
- 지원금 활용하여 과제 수행
- 결과물 전시 및 발표회 참여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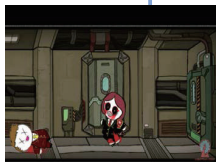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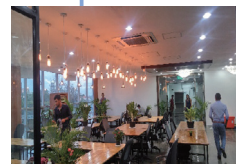


프로젝션 맵핑 전시

- 독섬 한강공원 전시
- 양평군립미술관 초청 전시

해외 창업

- 캄보디아 내 co-working space 창업



게임 제작 및 발매

- STEAM GREENLIGHT 선정
- 인디케이드출품, 동경게임쇼참여

중국 내 한국어 교육

- 중국 창주 직업전문기술학원 학생 대상 주2시간 총 16주 수업 실시



Factory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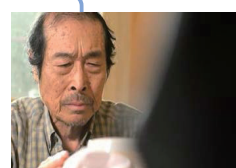
코딩 교육 콘텐츠 제작

- '동원 글로벌 익스플로러'로 선발되어 남미에서 실제 코딩 교육 진행



단편영화 제작

- 영화 '쌀' 제작
- 국제영화제 출품 예정



- 학사관리 개선 : 교육강도 유지+엄정 학사관리
- 교수법 워크숍 개최

2. 전공인문학 교육 모델 정립(사회 진출 역량 강화 관점)

- 1) 복수전공 의무 이수 모델
- 2) **융복합 인문학 모델**: 인문학과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모델(지역학 포함)
 - 트랙, 연계전공, 부전공 등
 - **융합전공**(복수전공)으로도 cf. 중앙대 문화컨텐츠융합전공)
 - **자기설계전공**(주전공 이외의 전공 교육과정 편성을 직접 설계하여 이수, 주전공과 중복 1/3이하),
- 3) **응용 인문학 모델**: 디지털 인문학, 데이터사이언스 등 사회적 수요에 맞는 인문학 교육 모델
- 4) **전공심화 모델**: 단일 전공을 이수하되 현장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적용(도제식교육, 캡스톤디자인, 100% 영어강의 등)

융합전공 (중앙대)

융합전공명	주관학과(부)	참여학과	최소 이수 학점	비고
금융공학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수학과	45	
문화콘텐츠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본어문학전공, 비교민족학전공, 심리학과, 역사학과, 철학과, 프랑스어문학전공, 첨단영상대학원	36	
창업학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제학부, 광고홍보학과, 융합공학부, 디지털이미징전공,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실내환경디자인전공	36	
게임·인터랙티브미디어	경영학부	경영학부, 디지털이미징전공, 융합교양학부	36	2017-1 신설
소프트웨어·인문	인문대학/컴퓨터공학부	인문대학,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45	인문대학 2016학번만 신청 가능 (2017-1 신설)

- 2) 융합계전공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지정된 선수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고 교차인정과목을 포함한 최소 전공이수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3) 주전공(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융합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교차인정의 범위는 최소 전공 이수학점의 1/3 이내로 한다. <각 전공별 교차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이수기준 참고>
- 4) 융합전공 허가 이전에 이수한 융합전공 과목도 융합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3. 연구 역량 강화

- 학석사 연계과정 적극 권장 : 대학원 활성화
- 학과평가대비 연구역량강화 :
 - ✓HK사업 참여 (cf. HK사업 확대 : 2017년 39개, 2021년 90개)
 - ✓행정지원 개선

IV. 문제점

➤ 학생들의 인식 변화 유도 필요

- 적극성 부재
- 진로 확신 부재
- 자신감과 전공에 대한 자긍심 부재
- 전공인문학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커리어 경로**의 제시
- 지도교수에 의한 도제식 교육 도입
- 취업페스티벌, 선후배 멘토링 강화

➤결국은 교수가 하는 일!

➤교수들의 업무부담 구조적 개선 필요

- 융복합인문학 / 순수인문학의 병행 과업
- 분과(전공)인문학 / 일반(교양)문학의 병행 과업
- 교육과 연구와의 병행 : 풍선효과
- 교수들의 희생 (특히 연구 희생)과 이에 대한 보상
- 새로운 분야로의 교수역량 계발과 취업 보람 있지만

→보상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행정지원

→구조적 효율화 필요

V. 결론

IV

참고자료

- [자료1]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사업
- [자료2]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 [자료3] 교양교육의 짧은 역사, 기초학문의 위기, 교양교육의 나아갈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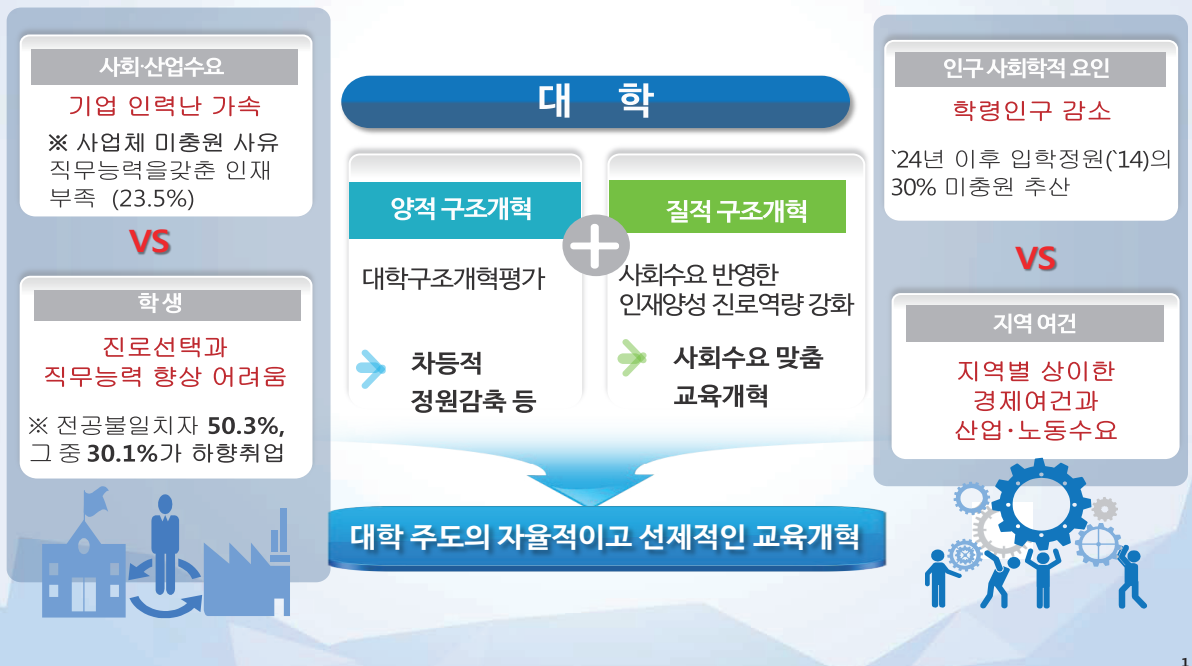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사업

※ 이 자료는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2017년 1월 4일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재편집한 것임

0

1 추진 배경

“사회와 학생이 원하는 대학교육을 위하여”



1

1 추진 배경

지금의 대학 경쟁력이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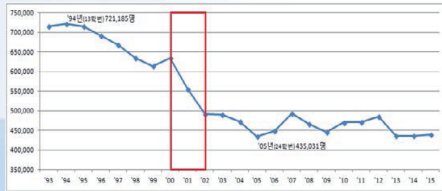
1. 대학의 체질개선을 통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절실

양적 조정 강조	양적 조정 + 대학의 체질 개선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 입학정원 감축 및 부실대학 퇴출	질적 개선	미래형 학사구조 개편, 특성화 등
	양적 조정	정원 조정, 부실대학 퇴출
	新수요 창출	유학생 유치, 성인학습자 등

2. 고등교육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추구

3. 학령인구 감소 및 인구절벽을 대비한 지속적인 대응 필요

< 출생아수 통계, 통계청 >



< 대학 입학자원 추계 >

학년도	'17	'18	'19	'20	'21	'22	'23
입학자원	520,734	519,857	506,286	470,812	427,566	410,960	398,157
감소분 (전년대비)	Δ17,012	Δ877	Δ13,571	Δ35,474	Δ43,246	Δ16,606	Δ12,803
감소율	Δ3.2%	Δ0.2%	Δ2.6%	Δ7.0%	Δ9.2%	Δ3.9%	Δ3.1%

2

2 성과 및 과제

※ 2주기 개선방안 정책연구 결과

1주기 성과

대학의 변화 노력 촉발

미래 위기감 공유

*산업구조변화, 성장 잠재력 둔화, 인적자원 감소 등

지방대 / 전문대 보호

정원감축 목표 초과 달성

*1주기 정원감축 실적(4만4천명)이 당초 목표치(4만) 상회

2주기 과제

혁신의 체질화

*자율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고 대학의 개혁노력 지속 추진

대학 특성화 적극 추진

*대학역량, 지역여건, 산업환경, 학생수요에 대한 분석

고등교육 균형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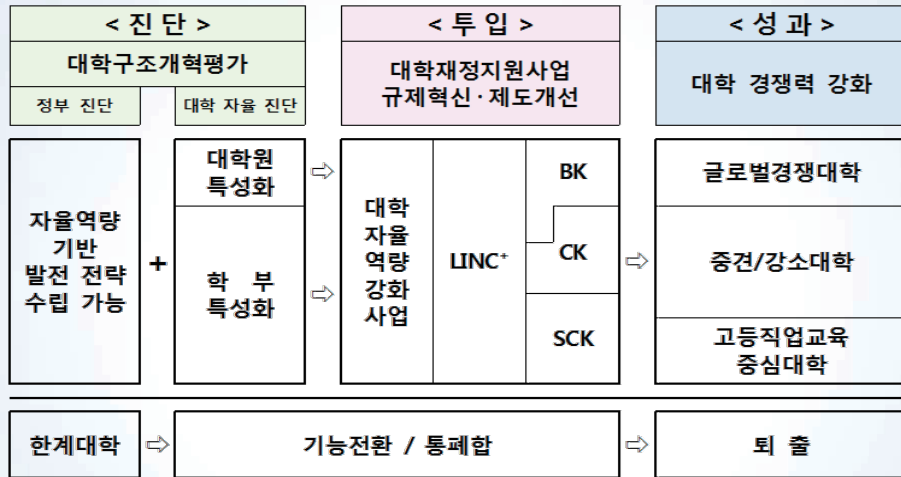
질적 개선 병행

*특성화, 학과개편, 운영 효율화

3

3 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사업 연계

※ 2주기 개선방안 정책연구 결과



- 대학 자율 역량의 객관적 진단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실시
- 대학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능동적으로 발전 모색
- 정부는 재정지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를 뒷받침

4

3 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사업 연계

※ 2주기 개선방안 정책연구 결과

① 평가를 통한 진단 및 재정지원 연계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② 대학재정지원 사업구조 간소화

③ 대학의 자율 역량을 기반으로 능동적 발전 지원

글로벌 경쟁대학

국제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대학 스스로의 능동적 발전 모색

고등직업교육 중심대학

고등직업교육 역량 고도화, 기술 사업화 및 취업연계 등 산학 협력 강화

중견 / 강소대학

비효율성 개선, 강점분야로의 역량집중 및 특성화 등 고효율 구조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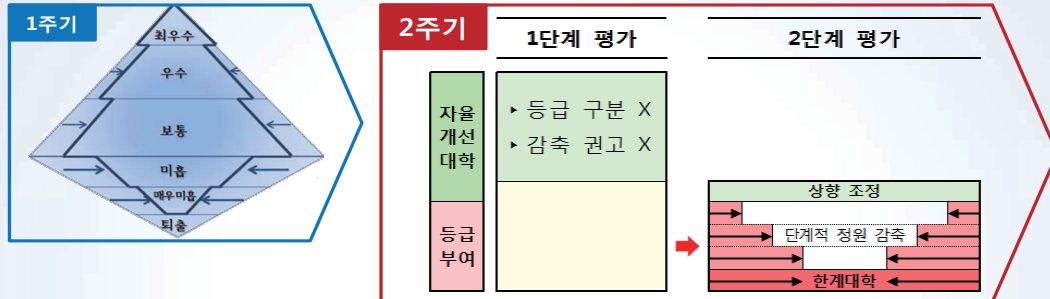
한계대학

재정지원 전면 제한, 통폐합, 기능전환 등 퇴출유도

5

4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모형(안)

※ 2주기 개선방안 정책연구 결과



- 1단계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
- 2단계 평가시 **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 부여
- **지역 기여도** 및 **운영 건실성**을 고려하여 **한계대학**(퇴출 대상) 선별

학생 충원	운영 상황	건실한 운영	운영 부실
	양호	대학 자율성 확대	강도 높은 개혁 및 정상화
어려움	양호	대학 자율성 확대	강도 높은 개혁 및 정상화
	어려움	상생·발전 방안 모색	퇴출경로 마련

6

5 사업 개편 방향 주요 내용

① 대학 자율성 확대

-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발전계획을 평가 및 지원(Bottom-Up)
- 예산 총액배분 및 자율편성 원칙 적용(Block Grant)



② 사업구조 단순화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한 사업 구조 단순화



7

6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

② 사업구조 단순화

<대학 재정지원사업 구조 개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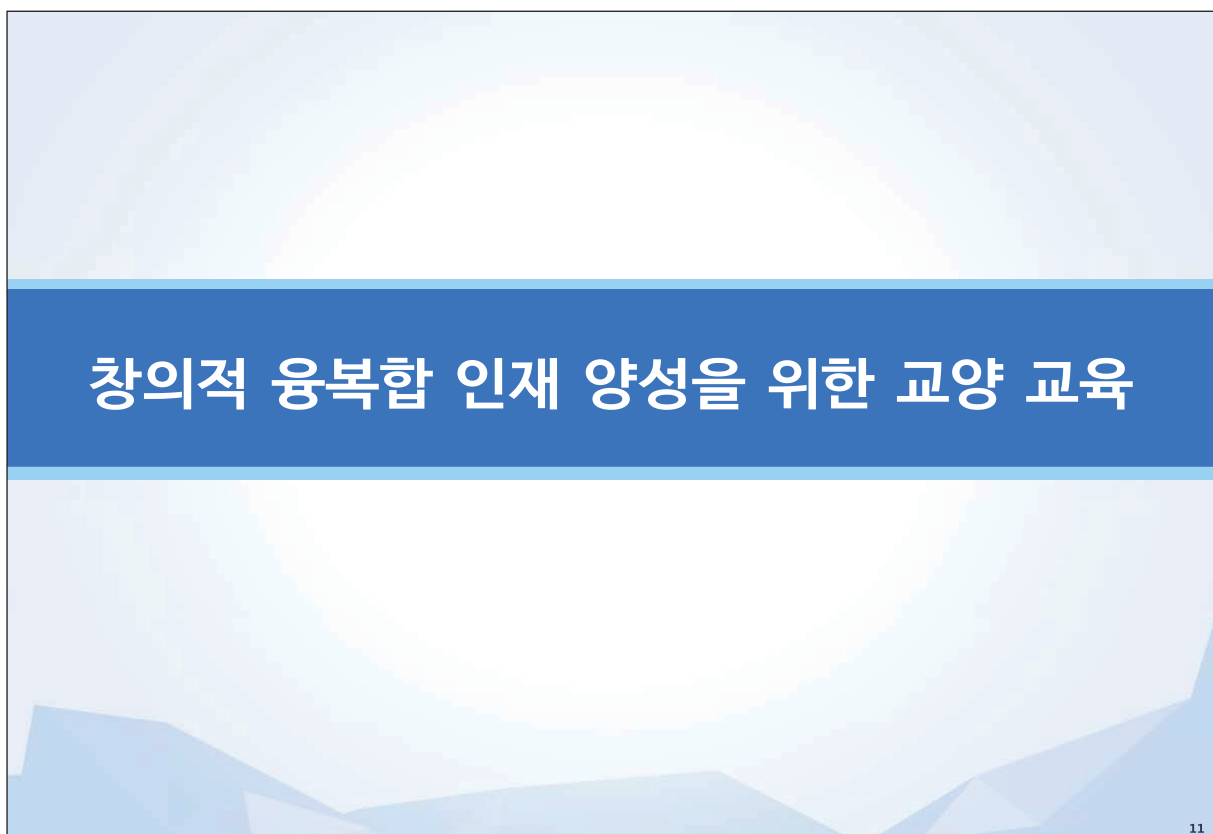


※ 2단계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2018년 실시 예정,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은 2019년 시행 예정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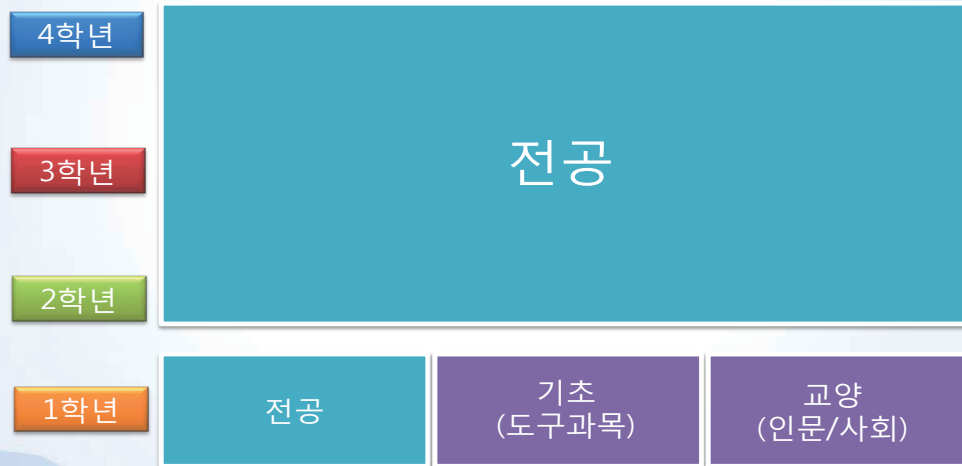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

9



1 기초 교양

기존 교양 교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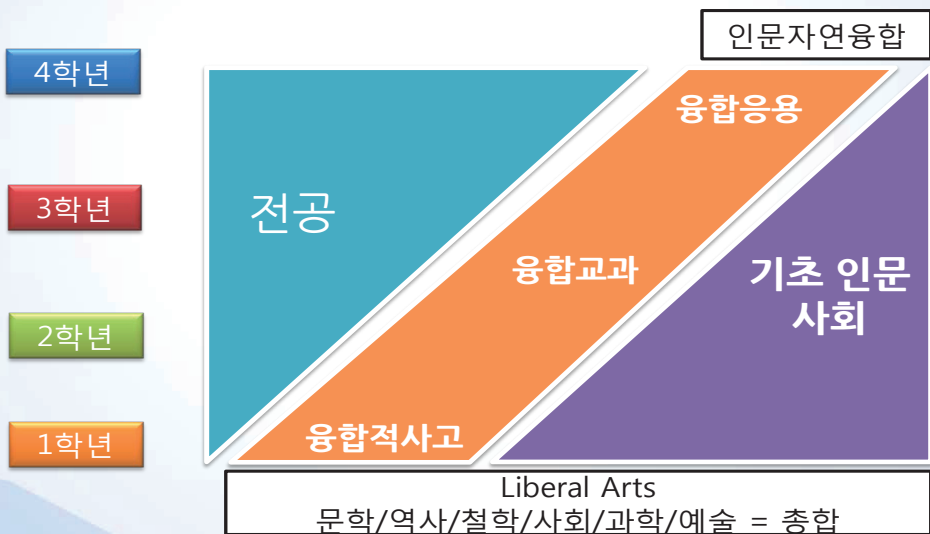


출처 : 한예원 외, “중합대학교 인문학부에서 인문·자연 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12

1 기초 교양

새로운 교양 융합 모델



출처 : 한예원 외, “중합대학교 인문학부에서 인문·자연 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13



교육부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2016. 12.

교 육 부
(대학학사제도과)

■ ■ ■ 목 차 ■ ■ ■

I. 추진 배경	1
II. 학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4
III. 추진 전략 (개요)	5
IV. 추진 과제	6
【 1. 국내대학 운영 및 교류 활성화 】	
1-1. 학사제도 유연화	6
1-1-1. 모듈형 학기 운영 및 유연 학기제 도입	6
1-1-2. 학사 운영기준 명료화 및 집중이수제 도입	8
1-1-3. 통합과정 동시 학위취득 허용	11
1-2.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12
1-2-1. 융합(공유)전공제 도입	12
1-2-2. 졸업유예제 도입	15
1-2-3. 학습경험(연구, 직장경력, 실습 등) 인정제 적용 확대	16
1-2-4. 국내 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18
1-2-5. 4학년 전과 허용	19
1-3. 시공간 제약 없는 이동·원격수업 제공	20
1-3-1. 교육과정 순회 운영	20

1-3-2. 원격수업 인정기준 마련	22
1-3-3. 대학원 원격수업 허용	23
【 2.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지원 】	
2-1.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발판 마련	24
2-1-1. 교육프로그램 수출 제도화	24
2-1-2. 복수대학 공동 해외진출 허용	29
2-1-3. 외국대학과 교류시 원격수업 학점취득 인정	30
2-1-4. 해외 연구소·사무소 설치 허용	30
2-2. 유학생 등록금 자율화	31
2-2-1.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상한제 적용 배제	31
【 3. 추가 과제 】	
3-1-1.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기간 확대	32
3-1-2. 석사과정 졸업요건 자율화	33
V. 향후 추진 일정	34
[붙임]	35
1.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35
2. 학사제도 법령 개선 연혁	37

I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지식·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 혁신과 경쟁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

⇒ 우리 대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 4차 산업혁명 준비 위한 ‘적응기술(adaptive skills)을 키워주는 교육시스템’ 평가에서 스위스 1위, 미국 4위, 일본 5위, 한국 19위(UBS, 2016.1)

- 한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하게 팽창하였으나 국제적 호환성 부족 등으로 경쟁국가보다 낮은 평가* 지속, 글로벌 경쟁력 제고 시급

* 영국 QS 세계대학평가('16), 국내 7개 대학이 종합순위 200위 이내이나 국제화 관련 지표에서는 300위 이내 대학 전무

- 그간, 「대학운영 자율화 조치('12)」 등을 통해 교육과정 공동운영*,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진전된 규제완화 필요

* ('97) 국내·국외대학 공동교육과정 허용 → ('12) 국내대학간 공동학위 허용 (복수학위 금지) → ('16)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요청

- 대학 현장에서 적극적인 해외진출 욕구*, 좀 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다학기제·집중이수제·공유전공제 등)을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 요구(대교협 등)

* 교육프로그램 수출을 통해 해외대학에서 국내학위 수여(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하대·한성대·한양대 등), 대학 공동 해외진출(경성대·동서대) 등

** 학점교류 활성화 제도정비(중앙대 등 23교),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허용(고려대) 등

- ❖ 인공지능(AI) 시대의 탄력적 지식활동을 보장하며 국제적 호환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융합·창의적 인재 양성
- ❖ 대학 현장이 요구하는 분절적 학사운영 탈피를 위한 제도와 그간 논의된 새로운 해외진출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혁신의 기반 조성

< 정책의 주요 경과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제도 규제개선 건의('16.8)
 - * 5학기 이상 다학기제 허용, 대학 자율로 전공 개설, 집중강의 허용 등
- 대학 해외진출 활성화방안발표('16.2.17,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 해외 대학생의 국내대학 학위수여 요건을 완화 및 국내·외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추진
- 정책연구 실시('15~'16)
 - *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및 학점교류 활성화방안 연구(김재웅 외, 2016)
국내외 대학간 조인트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한유진 외, 2016)
국내대학 국외진출 활성화 방안(정영길 외, 2015)
- 「고등교육 종합 발전방안」 발표('13.9)
 - * 국내외 대학간 교류 및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 촉진
-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발표('12.8)
 - * 프랜차이즈, 트위닝, 공동복수학위과정, 학점교류, 국외연구소 및 교육원, 국외분교 등 국제화모델 제시
- 「대학운영 자율화 조치에 따른 제도 운영요령」 발표('12.6)
 - *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학석사/석박사 학위 통합과정 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2.1.20)
 - *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도입, 학·석사 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 등
- 대학운영 자율화 관련 「고등교육법령」 개정*('11.7.21, '12.1.20)
 - *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학·석사 통합 교육과정 도입 등
-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08.8.1)
- 대학자율화 1·2단계 추진계획 발표('08.4.5, 9.17)
 - *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자율화, 학석사 통합 학위과정 근거 마련,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수업일수 단축(2주)시 교육부 승인 폐지 등 57개
-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제정('05), 개정('08)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정('97.12.13, '98.2.24)
 - * 실습학기제 도입,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현장의 목소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규제개선 건의('14.12, '16.8)》

- ❖ 공동·복수학위과정 외에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위탁 경영하는 방식 등 국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대 필요
- ❖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교육과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의 방법과 역량 향상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다학기제 필요
- ❖ 학과가 제공하는 전공외 학칙으로 정하는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사회수요와 학과 운영상 전체 실습이 필요한 경우 등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수업 또는 블럭제 수업 허용

《대학관계자·전문가 간담회('16.9.22)》 * 사전 의견수렴(9.8~9.20)

- ❖ ASEAN·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연간 30주 수업이 아닌, 방학기간 등을 활용한 집중강의를 통한 박사과정 개설 요청 증가
- ❖ 개발도상국의 외국대학 재학생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국내에서 졸업 학점의 1/4 이상 취득이 어려운 실정, 일정 조건하 적용 배제 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화지원팀 협의('16.9.28)》

- ❖ 국외진출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해외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각국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외국대학의 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등 교육기관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담당하는 정부차원의 기관 필요

《전국대학원장협의회 이사회 간담회('16.10.28)》

- ❖ 학사제도 개선방안은 학기·전공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바람직한 조치임
- ❖ 논문심사료 폐지·졸업유예제 도입은 신중할 필요

《교무처장 간담회('16.11.8, 11.10, 11.14), 총장 간담회(11.18)》

- ❖ 대학 현장에서 고민하던 부분(법령)을 개선하는 내용이며, 다만 평가 등과 연동하여 획일적인 운영을 강요하지 않길 바램
- ❖ 대학 자율로 유연학기제 운영 등 원천적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환영하며, 석사과정 자율화에 따른 질 관리는 규제가 아닌 시장에 맡길 것

II 학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칸막이식 3차산업형 학사구조의 한계

- 학과간·전공간 칸막이 등 경직적인 학사구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섭능력을 갖춘 융복합적 인재양성에 한계

* 고려대 : ‘언어·뇌·컴퓨터(LB&C)’ 전공을 개설('16) 운영 중이나, 별도의 독립 전공으로 불인정되어 실효성 저하

- 물리적인 통폐합은 학문의 정체성 훼손 및 학내 반발 심화 우려

□ 획일적인 학사규제

- 부실대학을 우려한 획일적이고 단선적인 규제로 경쟁력 있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저해
-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여 왔으나 강력한 공적 규제가 일부 상존

□ 국내용 규제로 국제화 촉진에 저해

- 외국 대학과 관련한 규정이 미흡하여 학생들의 국제적 이동성 저하
- 국내대학의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에 많은 규제장벽으로 글로벌 교육시장에서의 교류와 경쟁 촉진에 미흡

□ 불분명한 규제와 낮은 규제개선 체감도

- 기관 위주의 규제로 교수 등의 자율성이 발휘되기 어렵고, 획일적이고 모호한 규제로 이행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다수
- 그 동안 학사 관련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대학의 체감도는 낮은 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규제 개선 건의('14.12, '16.8)

Ⅲ 추진 전략 (개요)



IV 추진 과제

【 1. 국내대학 운영 및 교류 활성화 】

1-1. 학사제도 유연화

1-1-1. 모듈형 학기 운영 및 유연 학기제 도입 (신규) ①

□ 필요성

- 2~4학기제가 이미 제도화되었으나 대부분 2학기제에 여름 계절수업이 추가된 형태로 운영하여 경직적인 학기 운영이 대부분
- 공유대학, 융복합학제 운영 등의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학기제 도입

□ 다학기제(모듈형 학기) 운영

- 현행 2~4학기 규정을 대학 자율로 위임하여 다양한 학제 운영 허용
 - 5학기 이상 운영도 허용하여 오리엔테이션 학기·실습학기·집중학기 등 운영 가능
 - 계절수업*을 ‘정식 학기’로 인정하여 여름·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사 운영 활성화 및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용 가능
- * 고등교육법(§22)은 계절수업을 주간·야간·방송통신수업 등 수업의 유형으로 규정
- 집중이수제와 연계하여 학기 내에서도 이수 주기를 달리하는 모듈형(세션별) 교과 편성 가능
 - 15주 한 학기의 경우, 4주 세션, 1세션 8주와 2세션 7주, 15주 세션 등 복합 운영

< 다학기제(예시) >

개선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			↑		
현재	1학기	계절수업	2학기		겨울방학

※ 美 아이오와대(5개 모듈 운영) : 가을학기 - 겨울학기 - 봄학기 - 여름학기(집중 1,2세션)

□ 유연 학기제

- 입학, 전공, 졸업 준비 등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 운영 허용
 - (1·4학년) 학업과 진로를 숙고하는 ‘오리엔테이션 학기’, 조기취업을 감안한 취업·실습 학기제 등 탄력적 학기 운영
 - (2·3학년) 전공 이수기간 중 한 학기를 대학간 ‘학점교류 집중 학기제’로 운영하여 공유대학 등 여건 마련
- * (예시) 3학년 1학기를 학점교류 집중학기로 설정, 타 대학 전공교과 집중 수강

< 유연 학기제(예시) >

1학년	1학기		2학기	3학기
	오리엔테이션	진로탐색 세션		
2학년	1학기		2학기 (실습학기)	3학기
3학년	1학기 (학점교류 집중학기)		2학기 (실습학기)	3학기
4학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현장실습 등)

□ (개정안) 대학 자율로 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령 §10)

* (현행) 2~4학기제 → (개선) 학칙으로 정함

현행	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 ----- ----- 학칙으로 정하되, 교육목적·제19조에 따른 전공·학습자 특성·학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 학기제 연혁 >



1-1-2. 학사 운영기준 명료화 및 집중이수제 도입 (신규) ②

□ 필요성

- 다학기제 등 학사 자율 운영을 위해 학사운영의 기본을 명확히 하여 교육의 질 확보
 - 현행 수업일수(연간 30주),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의 적용 대상이 모호하고, 학생 출석시간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음
- 1학점 15시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성, 학기 구성 등은 대학이 탄력적으로 운영

□ <수업일수>, <학점당 이수시간>, <출석시간> 기준 정립

- 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수·학생의 교수시간·출석시간의 자율적 운영 근거를 마련

< 학사운영 주요개념의 이행주체 및 의무 >

대학	수업일수	30주 이상 개강, 일반·계절·실습학기 등 포함
교수	교수시간	학점당 15시간 이상 기준, 집중수업 허용
학생	출석시간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출석시간 기준을 학칙으로 근거 마련(예외 포함)

- <수업일수> 대학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교수·학생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대학의 의무)
 - 수업일수에는 대학이 정상적으로 수강신청을 받아 강의를 운영하는 다학기제에 따른 일반학기·계절학기·실습학기 등을 모두 포함
- * 美 연방교육법(U.S Code 20), 연방정부 재정지원 받는 대학은 30주 이상 운영 필수

- <학점당 이수시간> 각 교과목은 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교수는 학점당 15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교수의 의무)
- 국가간 상호 학점·학위 인정과 교류 확대를 위해 **국제적 호환성** (학습의 등가성) 확보
 - * 미국은 한국과 같이 15주 기준, 주당 1시간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SCH) 인정, EU는 25-30시간의 학습시간당(예습·복습시간 포함) 1학점(ECTS) 부여(졸업학점 180~240ECTS) ⇒ EU권 대학 : 국내대학 ≒ 2 : 1로 호환
- **학점당 15시간 이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되, 구체적인 수업편성 방식은 대학과 교수의 자율 사항 ⇒ **대학 학사제도의 기본 규정**
- <출석시간> 학점 취득에 필요한 출석 기준을 **학칙에 위임**
 - 현재는 출석 인정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조기 취업자 등의 문제에서 혼선 초래
 - ※ 초·중등학교는 수업일수 2/3 이상 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0②)
 - 학칙으로 조기 취업자 등의 출석시간 예외* 인정 가능
 - * 예외 인정기준 마련시 학내 위원회 등 필수적으로 거쳐서 확정

□ 집중 이수제 도입

- 학기당 15주 규정을 완화하여 단기 모듈형 세션 도입 및 집중이수가 가능한 수업 편성
 -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이수 가능
 -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블록 수업, 집중수업* 등 수업 운영 형태의 다양화
 - * 美 펜실베이니아주립대 workforce education 전공, 3학점 교과를 한 학기에 2회, 3일 집중수업
 - 단기간 집중적인 교과목 이수가 가능해져 산업체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은 엄격히 적용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

□ (개정안) 수업일수 · 교수시간 · 출석시간을 주체별로 구분 규정,
출석시간 기준 규정(시행령 §11 개정, §14조의2 신설)

* (현행) 수업일수 · 학점당 이수시간 규정, 규율대상 불분명 → (개선) 대학은 수업일수
30주 이상 준수, 교수는 학점당 이수시간 준수, 학생은 학칙에 정한 출석시간 준수

현행	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 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 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만 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 제등록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 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 항에 다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① ----- 따라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수업일수는 ----- ----- (단서 삭제) ②교원은 제14조의 학점당 이수시간 내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 습자(법 제36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 록하여 수업을 받는자(이하 “시간제 등록생”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 교 과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학기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출석일수) 학점 인정을 위한 학생의 출석일수는 학칙으로 정한다.

1-1-3. 통합과정 동시 학위취득 허용 [신규] ③

□ 필요성

- 학·석사, 석·박사 통합과정을 마친 경우 석사와 박사 학위 수여 가능하지만 중간학위(학사와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
- 통합과정 진행 중 학사와 석사학위 수여를 요청하는 사례 증가

□ 학·석사, 석·박사 동시 취득 허용

- 통합과정을 마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와 석사, 석사와 박사를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 미국 대학은 전공별 규정에 따라 논문 등 제출시 학위 동시 수여
- 통합과정 진행 중*에도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면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 가능
- *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적용 제외

□ (개정안) 통합과정 이수시 수여 가능한 학위 종류 명시(법 §35)

- * (현행) 중퇴·수료시 학사 또는 석사 수여 가능 → (개선) 통합과정 중 학사요건 또는 석사요건 충족시 학칙의 요건·절차에 따라 학사 또는 석사 수여 가능

현행	개정안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③ <신 설>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③대학은 제29조3의 학위과정 통합과정에 있는 사람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통합과정을 마치기 이전에도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⑦ (현행 제3항~제6항과 같음)

1-2.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1-2-1. 융합(공유)전공제 도입 (신규)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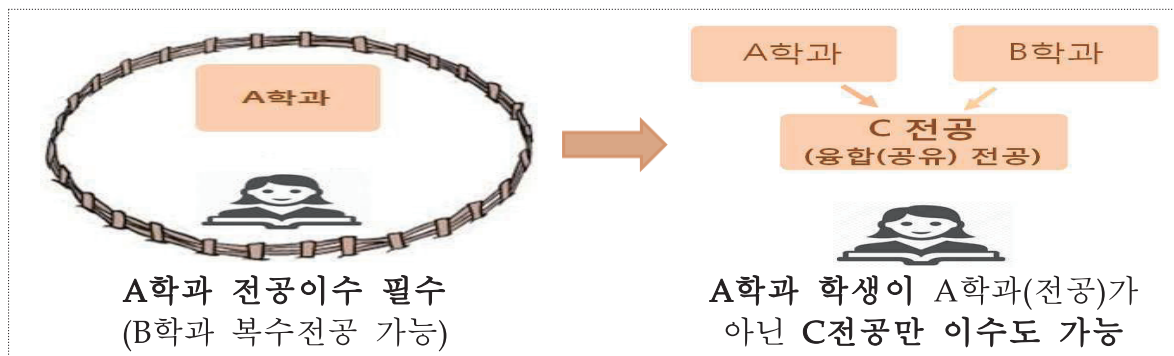
□ 필요성

- 학생이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전과를 통해 소속된 학과의 전공 이수가 필수여서 새로운 지식의 습득기회 제한
- 복수전공·연계전공·학생 설계전공 이수 가능하나,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융복합 전공 개설·이수 곤란

※ 美 올린공대(2002~), 학과 없이 5년마다 교육과정 폐기 및 신설, 모든 전공이 하나의 틀 안에서 융합교육, 문제해결 중심 교육, 뱀슨·웰슬리대와 학점교류

⇒ 드론, 로봇,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등 미래형 전공 개설 활성화 도모

- #### □ <융합(공유)전공>, <전공 선택제 도입> 등을 통해 대학내·대학간 전공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전공 선택폭 확대



- <융합(공유)전공>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이 아닌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 하드웨어적인 학과 개편(학과 통폐합 등) 등 편제 정원 없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전공의 신설 가능
- * (예시) 기계공학과·항공공학과·컴퓨터공학과 ⇒ 무인항공시스템(UAS) 전공 개설 : 기계공학과 소속 학생이 UAS 전공만 이수 가능

- 기존 ‘**학과(부)간 연계전공(시행령 §19)**’을 **심화·발전시킨 형태**로
원 소속학과의 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융합(공유)전공만 이수 가능
- 동일 학위과정(예: 학사-학사, 석사-석사)간 모든 학과(부)·전공을 대상,
단, 정원 통제된 학과(분야)*의 자격증 취득은 불가

* 예시 : 교원양성 관련학과, 보건·의료인양성 관련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 <대학간 융합(공유)전공> 학생이 소속대학과 타 대학의 학과간
구성된 융합(공유)전공 이수 가능

- 학생이 원소속대학 전공과 다른 대학 전공의 복수전공 허용
- 대학간에도 융합(공유)전공을 자율 설치·운영

* (예시) A대학 경제학과 입학 후, ‘A대학 경제학과와 B대학 IT학과’ 연합하여
개설한 ‘사이버상거래학 전공’ 이수

- 대학간 공동 교육과정으로 운영시 공동·복수학위 수여 가능

○ <전공 선택제 도입> 현재는 반드시 소속 학교 전공의 이수 의무

- 원소속 학과(부)·전공, 학과간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이나 (대학간)
융합(공유)전공 중에서 선택적 이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 학교·전공 칸막이를 낮추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

□ (개정안) 소속학과(부) 전공 필수이수 의무 폐지, 전공선택제 도입(시행령 §19)

* (현행) 소속 학과(부) 전공 이수 필수, 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 가능 →
(개선) 원 소속 학과(부) 전공의 필수 이수 의무 폐지, 원 소속 학과(부) 전공·연계
전공·학생설계전공·(대학간) 융합(공유)전공 중 선택하여 전공 이수 가능

< 전공(제) 관련 연혁 >



※ 1960~1988, 학과 중심 모집단위 → 1988, ‘대학정원 조정지침’을 통해 유사학과 통폐합 유도
→ 1994, ‘학과통합을 위한 정책전환 추진계획’ 발표 → 1995.5.31. 학부제 도입 구체화,
학사운영 자율화, 다전공 등 도입계획 발표 → 1998, 모집단위 광역화(2개 이상 학과 또는
학부별 학생선발, 고등교육법 시행령) → 2009, 모집단위 광역화 의무규정 폐지(시행령 개정)

현행	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 대학의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2이상의 전공 2.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4. <신 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 ----- -----의 하 여 ----- -----.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대학에 설치된 2이상의 전공 3.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대학에 설치된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현행 제3호와 같음)

1-2-2. 졸업유예제 도입 (신규) ⑤

□ 필요성

- 법령 규정 없이 대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 졸업유예생 수 : '11년 8,270명 → '13년 14,975명 → '14년 25,246명 → '16.2 17,744명
 - 4년제 대학의 약 73% 졸업유예제 운영, 운영대학의 62%는 정액 징수
- 국회(민생특위, '16.8)도 졸업유예제 도입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

□ 학위수여 유예 제도화

-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칙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유예 학생은 각종 정보공시 지표의 재학생 모수에서 제외하고, 취업률 산출시 졸업생 수 모수에서도 제외

□ (개정안) 학위수여 유예 규정 신설(시행령 §48조의2)

- * (현행) 규정 없음 → (개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수여 유예 신청 가능, 각종 공시 지표에서 제외

현행	개정안
<신 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u>제48조의2(학위수여유예)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수여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u> <u>②제1항의 학위수여 유예학생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u>

1-2-3. 학습경험(연구, 직장경험, 실습 등) 인정제 적용 확대 (신규) ⑥

□ 필요성

- 대학(원) 입학 이전 학습경험의 학점인정은 세계적 추세*이나 국내에서는 산업대와 전문대학에서만 인정(법 §23, '13년 도입)

* 호주에서는 학부·대학원 모두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미국·영국도 대학 자율로 학점 인정

- 국내외 전문직업인 등의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에서의 학습·연구·실습 등이 전공과 관련될 경우,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필요

* ASEAN·중남미 등 개발도상국 전문인력의 국내 대학원과정 수요에 대응, 외국 현장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 필요('16.9.7, 대학관계자 간담회)

□ 모든 대학(원)에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 학습경험인정제(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 대학이 개인의 사전학습(형식·비형식·무형식 포함)에 학점을 부여할지 결정하는 평가과정(AQF, 2012)

- 일반 4년제 대학·대학원도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기존 학습경험을 대학 자율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연구소 연구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무형문화재 전수경력 등 인정

- 졸업 학점의 1/5 이내에서 인정(현재 산업대·전문대는 1/4 이내 인정)

- 학칙에 따른 평가과정을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 학점인정

* 학칙에 평가절차 등 엄격히 규정하여 임의적 학점수여, 학위남발 등 예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부합한 학습경험의 학점 인정 가능

□ (개정안) 적용대상 확대, 국외 학습경험 인정, 인정한도 및 범위(법 §23, 시행령 §15)

* (현행) 산업대·전문대, 졸업학점 1/4까지 인정 가능 → (개선) 고등교육기관 전체로 확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학점의 1/5까지 인정 가능(산업대·전문대는 1/4 유지)

현행	개정안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에 한정한다. 6.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 ----- ----- ----- ----- ----- (삭 제) 6. <u>국내·외 다른 -----</u> ----- <u>국내·외 산업체 -----</u>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본문 및 단서 생략) 3.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u>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u> ②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u>학생이 재적 중인 모집단위(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를 말한다)의 교육과정과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u>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본문 및 단서 생략) 3.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u>산업대학과 전문대학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u> 나. <u>가목의 학교를 제외한 학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 이내</u> ② ----- ----- ----- <u>제19조제1항 각호의 전공과 국내·외 -----</u> ----- ----- ----- <u>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교 학습과의 등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u>

1-2-4. 국내 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신규) ⑦

□ 필요성

- <융합(공유)전공> 등 활성화를 위해 국내대학간 공동·복수학위 과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현재 국내대학간 복수학위과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동학위과정은 15명 이상 동일한 인원 참여시에만 허용(교육부 규정, '12.6)

※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 복수학위는 旣 허용

□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등

- 국내대학간 협약에 따른 복수학위 수여를 허용하여 대학간 교류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 공동 교육과정 운영시 최소 참여인원 및 참여인원 동수 규정 폐지

□ (개정안) 복수학위 명시적 허용(시행령 §13②), 기존 규정 폐지

* (현행)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금지 → (개선)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현행	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제50조(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② ----- ----- ----- ----- -----. ----- ----- ----- 수여하거나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각각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2-5. 4학년 전과 허용 (진행중)

☐ 필요성

-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공·선택권 확대로 적성에 맞는 진로(취업) 준비가 가능한 여건 마련 필요

☐ 전과허용 학년 확대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4학년생의 전과를 허용

☐ (개정안) 대학 2학년생 이상에게 전과 허용(시행령 §29, 개정중)

* (현행) 2~3학년 전과 허용 → (개선) 2학년 이상 전과 가능

현행	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등) ③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u>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등) ③ ----- ----- <u>제2학년 이상 학생</u>----- ----- ----- (단서 생략)

1-3. 시공간 제약 없는 이동·원격수업 제공

1-3-1. 교육과정 순회 운영 [신규] ⑧

□ 필요성

- 직장 위치나 직역 등 문제로 대학 통학이 어려운 학습자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간적 제약 없이 교육과정을 탄력적 운영
- 현재는 일반 대학(원)의 학교위치, 분교 규정 등을 통해 인가된 장소 외에서의 수업 금지(고등교육법 §4·24, 시행령 §2)
 - * 재직자 대상의 산업체 위탁교육과 계약학과 강의는 학교 밖 시설(산업체 무상 제공시설)에서 개설 가능(고등교육법 §40, 산학협력법 §8, 교육부 규정)

□ 이동식 교육과정 수업

- 교수가 대학이 위치한 시·도 행정구역 내에서 지역을 순회하며 **학교 밖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운영**
 - 교사, 국가대표 선수, 군인·경찰, 산업단지 근무자 등 특정 직군의 학생에 한정하여 본교에서와 동등한 수준의 강의 제공
 - 국가대표 선수촌·군부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경우에는 시·도 지역 제한 없이 이동식 수업 가능
- 전문·특수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체육계열 학부 등 제한적 과정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승인 후 운영** ⇒ 불법학습장 문제 방지

- (개정안)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장소(방식) 규정을 신설(고등교육법 시행령 §13조의2), 이동수업 가능한 과정·요건 등 구체적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함

-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 학교 밖에서 교육과정 운영 허용
- * (현행) 대학 소재지 외 수업 금지 → (개선) 대학이 소재한 시·도 내 학교 밖 일정한 장소에서 강의 개설 가능, 제한적 과정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 후 운영

현행	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신 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이동수업) ①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의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업을 학교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업의 대상, 전공분야, 설치과정 등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1-3-2. 원격수업 인정기준 마련 (신규) ⑨

□ 필요성

- 최근 원격수업 비중이 확대되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기준이 없어 교실수업과 원격수업간 학습의 등가성 확보의 어려움

- 대학 자율적인 원격수업에 대해 질 관리 부실* 등 문제제기 지속

* 강의시간 부족 · 출결관리 소홀 · 콘텐츠 품질관리 미흡 · 시험관리 부적정('10.6, 감사원), 일부학과의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운영('12.1, 감사원)

□ 원격수업 운영기준 제정

- 원격수업 운영비율, 출결처리 및 평가 등 학사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대학 원격수업 및 대학간 공동 원격수업에 적용

* 주요 내용(안) : 원격수업 취득학점 인정범위, 1학점 콘텐츠 분량 등

- (국내대학 학생) 각 학생 졸업학점의 20%까지 원격수업으로 학점 취득 가능, 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 참여시 국내·외국대학에서 각각 취득한 학점의 20%까지 원격수업을 통해 학점취득 가능

- (외국대학 학생) 각 학생이 국내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국내학위 취득시 국내대학 취득학점의 20% 범위에서 원격수업 학점취득* 인정

* (예시) 졸업학점 140학점의 1/4인 35학점을 국내에서 취득시, 35학점의 20%인 7학점까지 원격수업으로 학점취득 가능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의 학점 인정을 위한 기준 설정

□ (개정안) 위임규정 신설(시행령 §14) 후 '원격수업 운영기준*' 제정

* 대학 의견수렴시, 339개 (전문)대학 중 317개 (전문)대학 이견 없음('16.6)

* (현행) 관련 규정 부재 → (개선) 법령 규정 및 학칙에 따라 20%까지 원격수업 학점취득 인정

현행	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법 제21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의 이수에 있 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 ----- ----- 다만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에 대한 학점당 이수시간, 학점 인정범위 등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1-3-3. 대학원 원격수업 허용 [신규] ⑩

☐ 필요성

- 현행 규정상 대학원의 원격수업이 금지되어 재직자 등 대상으로 효율적 수업이 어려움

☐ 대학원 원격수업 자율 활용

- 학위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자율*로 원격수업 운영, 졸업학점의 20%까지 원격수업 학점취득 허용
 - ‘원격수업 운영기준’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국내·외국대학 각각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

*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적용 제외(원격수업 금지)

※ 美 조지아공대(’16년 등록생 3,000여명), MIT는 온라인 석사과정 운영

- 국내·외 대학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시에도 원격수업 활용 가능

☐ (개정안) 본 계획을 통해 원격수업 금지규정(’12.6, 교육부) 폐지, ‘원격수업 운영기준’ 제정시 관련 내용을 규정

* (현행) 대학원 원격수업 금지 → (개선) 학칙에 따라 졸업학점의 20%까지 원격수업 학점취득 허용

현행	개정안
대학운영 자율화 조치에 따른 제도 운영요령(교육과학기술부, ’12.6) (p.5) 대학원은 원격수업 운영 불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시안) (p.5) 해당 내용 폐지

【 2.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지원 】

2-1.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발판 마련

2-1-1. 교육프로그램 수출 제도화 [신규] ⑪

□ 필요성

- 개발도상국 등에서 국내대학의 자국 진출 요청(교육한류)이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교육과정·교직원 등) 중심의 적극적인 국외진출 모색중
- 법령상 대학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외 진출에 애로

□ <트위닝>, <프랜차이즈>, <합작학교> 등 대학의 간접진출 방식의 유형 및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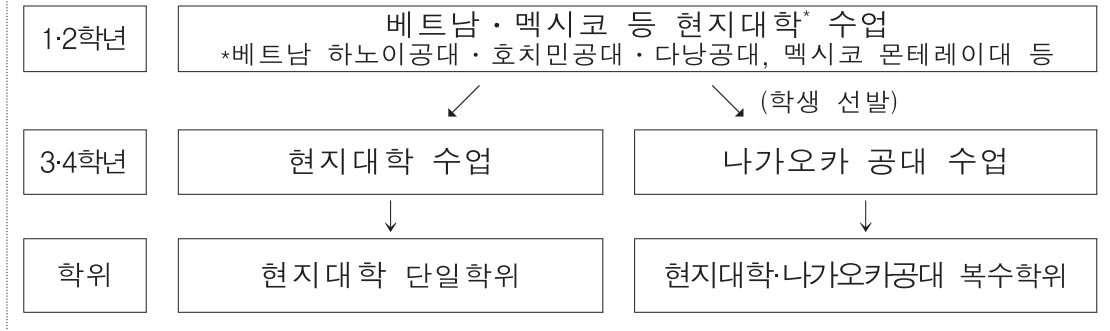
- 해외 분교·캠퍼스와 같은 물리적 기반에 의존하지 않고, 외국대학에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외 진출
- 국내·외국대학간 관계, 교육과정 운영방식 및 교육장소 등에 따라
①트위닝, ②프랜차이즈, ③합작학교로 구분

① <트위닝> 국내대학과 해외대학간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대학 주도로 교육과정을 설계, 협약된 공통의 교육과정을 분담하여 운영

- 국내대학에서 졸업학점의 1/4이상 취득시 공동·복수학위 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15①, '16.10.25 既 시행)

- 외국대학 재학중 원격수업을 통한 국내대학 학점취득 허용

❖ 日 나가오카공대 트위닝 프로그램 운영 예시



② <프랜차이즈>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게 국내대학 교육과정 사용을 승인

⇒ 외국대학이 승인받은 교육과정 전부를 운영 ⇒ 국내대학 학위 수여

-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외국대학에서 교육과정의 1/4 이상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대학의 학위수여 가능
⇒ 양질의 수업 제공을 통해 학위 남설 방지

* 일정기간 파견 또는 방학기간 활용 집중수업 등 활용 가능

- 질 관리를 위해 학생 선발과정 참여, 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평가 방식, 출제 및 평가 등 시험관리, 질 관리 현장점검, 컨설팅 등 실시
- 추후, '국가학위인정 정보센터(NIC)'에서 해외 진출계획 검토 및 교육과정 운영·학위수여 등 질 관리(quality assurance) 검증

❖ 英 Staffordshire University 사례

- Staffordshire대학, 외국 협약대학*의 Staffordshire대학 교육과정 사용을 승인
 - * 주로 고등교육 발전이 뒤쳐진 아시아(인도·말레이시아 등)와 아프리카(가나 등) 국가
- Staffordshire대학, 교육과정 운영, 학사행정·평가 등 협약대학 방문 점검
- Staffordshire대학 교육과정 이수시, Staffordshire대학 학위 수여
 - 영국정부 고등교육 질 관리 기구(QAA)의 '고등교육 질 관리 기준' 준수

③ <합작학교>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외국정부)과 협약을 맺고 제3의 새로운 대학을 설치, 이사회 공동 참여

-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수진 파견 또는 신규 채용된 교수진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 새로운 대학 명의의 학위 수여
- 국내대학과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공동·복수학위 수여 (고등교육법 §21, 시행령 §13, 15)

구분	트위닝 (twinning)	프랜차이즈 (franchise)	합작학교 (alliance/network)
교육과정 설계	국내대학 주도	국내대학 주도	국내대학-외국대학
관계	협업(collaboration) 강조	협약(arrangement) 강조	협업(collaboration) 강조
협약	3~5년 협약, 갱신	3~5년 협약, 갱신	별도 규정
이사회 공동 구성	필요 없음	필요 없음	공동 구성
적용 규제	양국	양국	양국
교수진 파견	자율	자율	보편적
학생 이동	이동	이동하지 않음	이동하지 않음
수업 장소	외국대학에서 전반부, 국내대학에서 후반부 교육(1+3, 2+2, 3+1 등)	외국대학에서 실시	외국대학에서 실시
학위	공동·복수학위	국내대학 학위	신설대학 학위 공동·복수학위
사례	日 나가오카 공대- 베트남 다낭공대	英 Staffordshire대 우즈베키스탄 IUT	싱가포르 Yale-NUS

□ (개정안) 시행령(§13)에 트위닝·프랜차이즈·합작학교 근거 마련,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함(가칭,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제정)

* 운영주체, 교육과정 개발·운영, 평가, 학위수여 종류 등

* (현행) 공동교육과정만 규율 → (개선) 시행령에 트위닝·프랜차이즈·합작학교의 개념을 명시적 규정,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함



현행	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신 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②제1항의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1.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내대학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대학간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학점취득을 상호 인정하여 참여대학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 2.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내대학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참여대학 공동 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 3.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내대학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학점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협약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칙에 따라 국내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정 4.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내대학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외국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대학 주도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협약된 공통의 교육과정을 국내대학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외국대학이 분담하여 운영하고 국내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

현행	개정안
	5. <u>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게 국내대학의 학위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외국대학이 승인받은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전부를 운영하며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외국대학에서 졸업학점의 4분의 1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업하는 경우에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u> 6. <u>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내대학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외국대학(또는 외국정부)와 협약을 맺고 외국에 새로운 대학을 설치하고 이사회를 공동구성하여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며 새로운 대학 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u>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본문 생략) 1. _____.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 나. <u>가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u> 다. (신 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본문 생략) 1. _____. 가. (현행과 같음) 나. <u>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전부</u> 다. <u>가목과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u>

2-1-2. 복수대학 공동 해외진출 허용 [신규] ⑫

□ 필요성

- 대학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대학의 강점분야 중심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교육시장에서 경쟁 우위 선점
 - * 일본 Gunma대 · Nagaoka공대 · Toyohashi공대 · Gifu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하노이공대 트위닝 프로그램 개설
- 현행 규정은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간 개별적 협약을 허용하지만, 컨소시엄의 해외진출 허용여부는 불분명

□ 대학 컨소시엄의 해외진출 활성화

- 교육과정 공동운영시 개별 대학 뿐 아니라 대학간 연합 구성을 통한 해외진출도 허용
 - * 경성대 · 동아대, 공동 국외진출을 위한 협약 체결('16.9.8)

□ (개정안) 국내대학 컨소시엄의 해외진출 명시적 허용(시행령 §13①)

* (현행) 개별 대학의 해외진출 가능 → (개선) 하나 또는 둘 이상 대학의 해외진출 가능

현행	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u>하나 또는 둘 이상의 대학</u>, ----- ----- ----- ----- ----- ----- ----- ----- ----- -----

2-1-3. 외국대학과 교류시 원격수업 학점취득 인정 (신규) ⑬

☐ 필요성

- 학생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학점취득을 허용하여 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참여 활성화
- 국내·국외 대학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시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 인정에 대한 규율 부재

☐ 교육과정 공동운영시 외국대학의 원격수업 인정

- 국내·외 대학간 공동 교육과정 협약과 학칙에 따라 학점 취득 가능
-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20%까지 원격수업 취득 인정

☐ (개정안) ‘원격수업 운영기준’ 제정시 관련 내용을 규정

* (현행) 규율 부재 → (개선) 외국대학 취득학점의 20%까지 학점취득 명시 허용

2-1-4. 국외 연구소·사무소 설치 허용

☐ 필요성

- '11년부터 국외 연구소 등 설치가 허용*되었으나, 대학 등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관심 부족 등으로 운영 실적 미비

* 교육부 컨설팅을 거쳐 국외 연구소·사무소 등 임차 운영 가능(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11) →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대학설립운영규정 §11)

☐ 해외 전진기지 자율 운영

- 대학의 국외 연구소·사무소 등 설치하여 대학(원)생·교수 등의 국외 교류 거점으로 활용을 촉진(既 허용)

2-2. 유학생 등록금 자율화

2-2-1.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상한제 적용 배제

☐ 필요성

- 외국인 유학생 학습·생활지원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상한 내 등록금 징수하여 대학 운영의 비효율 초래
- 증가되는 재원으로 학교생활 지원 및 외국인 장학금 재원 등 활용

☐ 등록금 자율 책정

- 등록금 인상률 산출대상(고등교육법 §11)에서 제외되는 정원의 모집 외국인 유학생은 등록금 상한제 적용 배제됨을 명시적 안내(既 자율화)

【 3. 추가 과제* 】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

3-1-1.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기간 확대 (신규) ⑭

□ 필요성

- 조기 노동시장 진입(복귀), 박사과정 진학을 위한 단기 졸업수요 증가
- 수업연한이 2년(6개월 단축 가능)으로 획일적이어서 학습자 수준과 여건 등을 고려한 운영 곤란(법 §31, 시행령 §26)

□ 수업연한 예외 인정기간 확대

- 수업연한 단축기간을 1년으로 확대(6개월 → 1년)하여, 집중적인 학습시 1년에 고급지식 학습이 가능한 여건 마련

* 영국·호주는 석사 1년에 취득 가능, 미국은 소정의 학점취득시 1년에 졸업 가능

- 대학이 연구·프로젝트실적, 집중이수, 전공분야 등 수업연한의 단축기준을 학칙에 구체적으로 규정, 석사학위의 질적 수준 유지

□ (개정안) 수업연한 단축기간 확대(시행령 §26)

* (현행) 6개월까지 단축 가능 → (개선) 학칙의 요건·절차에 따라 1년까지 수업연한 단축 가능

현행	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생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생략)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u>1년 6개월 이내</u>	2. ----- ---- : <u>2년 이내</u>
3. <u>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6개월 이내</u>	3. <u>석사학위과정 : 1년 이내</u>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u>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전문학위과정</u> : <u>각각 1년 이내</u>	4. <u>박사학위과정 : 6개월 이내</u>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삭제) : <u>1년 6개월 이내</u>

3-1-2. 석사과정 졸업요건 자율화 (신규) ⑮

□ 필요성

- 재직자 등 학습자 특성과 공학 등 전공 특성을 고려, 대학 자율로 졸업요건을 정하도록 하여 고등교육 국제적 추세에 동참

* 호주는 논문 제출이 졸업 필수요건 아니며, 미국 대학은 논문 이외의 방법 허용

□ 석사학위 졸업요건 자율화

- 대학이 학위논문 제출, 프로젝트 수행 등 학위취득 요건을 학칙으로 규정

* 美 펜실베이니아주립대, 학술학위의 경우 논문 또는 에세이 · 보고서 제출, 전문학위는 인턴십 · 전시 · 제작 · 종합시험 · 캡스톤 과정 등으로 대체 가능

□ (개정안) 석사학위 논문제출 필수규정 삭제(시행령 §44①)

* (현행) 석사학위 논문제출 의무 → (개선) 학칙으로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정함

현행	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 ----- ----- ----- ----- ----- 다만, 석사학위는 학칙에 따라 학위 논문에 상응하는 학습경험 및 결과 등 -----.

V

향후 추진 일정

【개선방안 발표】

- 개선방안 발표(12월) 및 대학설명회(12월~)
- 대학학사 안내서 발간('17)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 시행령 개정 추진 : '16.12~'17.2
⇒ '17학년도 신학기부터 적용 추진
- 법률 개정 추진 : '17년 2월부터 상정 추진
⇒ '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추진

붙임 1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구분	연번	과제명	현황	개선	관련 법령
학사제도 유연화	①	모듈형 학기 운영 및 유연 학기제 도입	2~4학기제 1·2학기+계절수업	- 다학기제 운영 5학기 이상 운영 허용 - 학기 내 이수주기가 다른 모듈형(세션별) 교과 편성 - 유연 학기제 허용	시행령 §10(개정)
	②	학사 운영기준 명료화 및 집중이수제 도입	- 수업일수·학점당 이수시간 규정의 규율대상 불분명 - 출석시간 규정 불비 - 수업일수보다 짧은 기간의 강의 개설 허용여부 불분명	- 수업일수, 학점당 이수시간, 출석시간 기준 정립 - 집중 이수제 도입 - 학점당 이수시간 엄격 적용	시행령 §10, §11①(개정), §11②(신설), §14, §14조의2(신설)
	③	통합과정 동시 학위취득 허용	통합과정 이수시 학석사, 석박사 동시 취득 관련 규정 없음	학석사, 석박사 동시 취득 허용	법 §35③(신설)
학생의 학습권 등 보장 확대	④	융합(공유)전공제 도입	- 소속된 학과(부)의 전공 이수 필수 - 학과·전공, 대학간 칸막이로 융복합 전공 개설·이수 곤란	- 융합(공유)전공제 도입 - 학과 개편없이 학과와 학과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구성 - 대학간 융합(공유)전공도 허용 - 전공선택제 도입 - 원소속 학과(부)·전공, 학과간 연계전공, 학계설계전공이나 (대학간) 융합(공유)전공 중에서 선택적 이수 허용	시행령 §19①(개정)
	⑤	졸업유예제 도입	법령 규정없이 대학 자율 운영	학칙에 따라 학생에게 학위수여 유예 신청권 부여	시행령 §48조의2(신설)
	⑥	학습경험인정제 적용 확대	산업대·전문대에만 인정(졸업학점의 1/4 이내)	- 일반 4년제 대학·대학원도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기존 학습경험(연구, 직장경험, 실습 등)을 학점으로 인정 허용 - 졸업학점의 1/5이내 인정	법 §23(개정) 시행령 §15(개정)
	⑦	국내 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금지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명시적 허용	시행령 §13(개정) 교육부령(26) 폐지

구분	연번	과제명	현황	개선	관련 법령
시공간 제약 없는 이동·원격 수업 제공	⑧	교육과정 순회 운영	▪ 본교·분교 등 인가된 장소 외에서 수업 금지	▪ 이동식 교육과정 수업 허용 - 지역 순회 또는 국가대표 선수촌 등 학교 밖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운영 - 전문·특수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체육계열 학부 등 제한적 과정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승인 후 운영	시행령 §13조의2(신설)
	⑨	원격수업 인정기준 마련	▪ 원격수업 비중이 확대되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기준 부재	▪ 교육부장관에게 원격수업 기준 설정 권한 위임	시행령 §14(개정)
	⑩	대학원 원격수업 허용	▪ 대학원 원격수업 금지	▪ 졸업학점의 20%까지 원격수업 허용	원격수업 운영기준 제정
국내대학의 국외진출 발판 마련	⑪	교육프로그램 수출 제도화	▪ 법령상 대학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외 진출에 애로	▪ 국내대학의 해외 간접진출 방식의 유형·요건 제도화 - <트위닝> 국내대학과 해외대학이 교육과정을 분담 운영, 국내에서 졸업학점 1/4 취득시, 국내학위 수여 - <프랜차이즈>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게 국내대학 교육과정 사용을 승인 ⇒ 외국대학이 승인받은 교육과정 전부를 운영 ⇒ 국내대학 학위 수여 - <합작학교>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외국정부)과 협약을 맺고 제3의 새로운 대학을 설치, 국내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시 국내대학 학위 수여	시행령 §13(개정), §15(개정)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제정
	⑫	복수대학 공동 해외진출 허용	▪ 대학 개별적인 해외진출 허용	▪ 국내대학 컨소시엄의 해외진출 명시적 허용	시행령 §13(개정)
	⑬	외국대학과 교류시 원격수업 학점취득 허용	▪ 관련 규정 부재	▪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시 외국대학 취득학점의 20%까지 원격수업 취득 허용	원격수업 운영기준 제정
추가과제	⑭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기간 확대	▪ 석사과정 수업연한 2년 ▪ 6개월 단축 가능	▪ 수업연한 단축 허용기간을 확대(6개월 → 1년)	시행령 §26(개정)
	⑮	석사과정 졸업요건 자율화	▪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석사논문 필수	▪ 필수규정 삭제 ▪ 대학이 학위취득 요건을 학칙에 규정	시행령 §44(개정)

붙임 2

학사제도 법령 개선 연혁

정책명	법령 연혁	개선
학기제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 〉 · ('49, '52) 2학기제, 4월 시작(1학기 4.1 ~9.30, 2학기 10.1~3.31) · ('61) 1학기 시작일 3월로 개정(1학기 3.1~8.31, 2학기 9.1~2월말) · ('75) 대학(전문대학 제외) 및 사범대학 계절학기 운영 허용 · ('88) 2학기 수업의 학기 개시일전 개강 허용 · ('95) 2~5학기 자율 운영 · ('98) 2~4학기 자율 운영 ※ 계절수업은 계속 규정('52년 교육법시행령 ~)	▪ 다학기제 및 유연 학기제
수업일수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 · ('52) 수업일수 210일 이상 · ('62) 천재지변 등 30일 이내 수업일수 감축 가능 · ('83) 수업일수 32주 이상(매학기 16주 이상), 2주 이내 수업일수 감축 가능 · ('95) 수업일수 매학년도 30주 이상 운영 · ('98) 매학년도 30주 이상	▪ 수업일수, 학점당 이수시간, 출석시간 기준 정립 ▪ 집중 이수제 도입
석박사 통합과정	〈 고등교육법 제35조 〉 · ('95) 석박사 통합과정 도입 · ('11) 학석사 통합과정 도입 · ('97)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퇴학자에 석사학위 수여 허용 · ('11) 학사통합과정 중도 퇴학자 및 미수료자에 대한 학사학위 수여 가능	▪ 학석사, 석박사 동시 취득 허용
복수 전공 등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 〉 · ('52) 학부는 전공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 · ('72) 전공하는 학과 이외의 학과의 과목 이수(부전공) 규정 · ('74) 전공할 수 있는 학과 2개(전공, 부전공) 이내 · ('95) 전공할 수 있는 학과는 1개 학과로 하되, 학칙으로 2개 학과, 부전공 등 이수 허용 · ('98) 2이상의 전공,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의 연계전공, 학생이 구성한 전공 허용	▪ 융합(공유)전공제 ▪ 전공선택제

정책명	법령 연혁	개선
졸업유예제 도입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의2 〉 · 신설	▪ 졸업유예제
학습경험 인정제 적용 확대	〈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 · ('13) 산업대·전문대에만 인정, 졸업학점의 1/4 이내	▪ 1/5이내 학습 경험 인정
대학간 복수학위	〈 교육부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제2항 〉 · ('12)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 허용 · ('14)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취득학점은 졸업 학점의 1/2까지 인정	▪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허용
교육과정 외부 운영	〈 고등교육법 제4조, 제24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 제13조의2 〉 · 신설(시행령 제13조의2) · ('97) 산업체 위탁교육 도입 · ('08) 외부학습장 허용(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 · ('03) 계약학과 도입 · ('08) 외부학습장 허용(계약학과 운영요령 제정)	▪ 아동식 교육과정 수업 허용
원격 수업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 · ('73)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허용	▪ 교육부장관에게 원격수업 기준설정 권한 위임
대학원 원격수업 허용	〈 대학운영 자율화 조치에 따른 제도 운영요령 〉 · 신설	▪ 졸업학점의 20%까지 원격수업 허용
대학 해외진출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 · 신설	▪ 국내대학의 해외 간접진출 방식의 유형·요건 제도화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제1항 〉 · ('97) 대학의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허용 · ('98) 대학 및 산업대학, 외국대학과의 학사학위과정,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허용 · ('01) 전문대학 추가	▪ 국내대학 컨소시엄의 해외진출 명시적 허용

정책명	법령 연혁	개선
	· ('06) 방송·통신대학 추가 · ('07) 교육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추가 · ('09)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대학 자율성 부여 · ('14)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취득학점은 졸업 학점의 1/2까지 인정 · ('16) 졸업학점의 3/4까지 인정범위 확대	
	〈 신 설 〉 · 신설	▪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시 외국대학 취득학점의 20%까지 원격수업 취득 허용
대학원 학사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6조 〉 · ('49) 대학원 수업연한 3년이상 · ('72) 대학원 수업연한 2년이상 · ('95) 수업 연한 단축 허용 · ('96) 수업연한 석사 학위 6개월, 석박사통합과정 1년 이내 단축 가능 · ('98) 수업연한 석사학위 6월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 1년 이내 단축 가능	▪ 석사과정 1년까지 단축 허용
석사논문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제1항 〉 · ('52) 석사학위 논문 심사와 구두심사 필수 · ('98) 석사 학위 논문 제출 필수	▪ 석사논문 자율화

박성수, 김형기, 박경림

교양교육의 짧은 역사, 기초학문의 위기, 교양교육의 나아갈 방향

홍 성 기(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한국교양교육학회장)

1. 교양교육의 짧은 역사

한국의 교양교육은 일제시대 경성제국대학의 예과 과정의 영향과 함께 해방 후에는 미군정에 의해 미국대학의 학사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양쪽 모두 교양교육을 강조하였으나, 대략 1990년 전후부터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심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다.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대부분의 교강사들은 교양교육의 본래 모습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간략하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교양교육의 현 위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 하버드대학의 배분이수 도입제 배경

전공과 교양의 구분은 물론 전공 간의 구별도 없이 교수들은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그 중에서 일정 수를 수강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생각해 보자. 즉 학생들이 어떤 교과목을 선택하든 일체의 제약도 이수 규정도 없다. 우리는 이런 대학을 ‘난장(亂場)대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의 난장대학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겠지만, 또한 많은 장점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본 이런 난장대학은 실제로 존재하였다. 1914년 로웰(Lowell) 총장에 의해 집중이수(concentration requirements)와 배분이수(distribution requirements)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전임 엘리엇(Eliot) 총장이 도입한 자유선택제(system of free electives) 만이 있던 하버드대학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하버드대학 학생들은 16개의 全講座(1년간 진행:full course)를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로웰 총장은 하버드의 자유선택제는 학생들이 단순히 벼락 공부로 16개의 全講座(1년간 진행:full course)를 이수해도 졸업할 수 있는 불합리한 체제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런 비체계적인 교육을 크게 두 영역으로 분할하였다. 하나는 6개의 전강좌를 특정한 분야에서 수강해야 하는 집중이수(concentration¹⁾ requirements)이고, 다른 하나는 6개의 전강좌를 여러 개의 분야에서 수강해야 하는 배분이수(distribution requirements)이다. 이점은 로웰의 학문적 이상이 “모든 것을 조금씩 알고 어떤 것은 잘 아는(to know a little of everything and something well)” 데에 있기 때문이었다. 하버드대학의 배분이수제도 도입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주었고, 한국의 대부분의 대학들도 이를 받아들였다. 즉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진 대학교육이 분할되어 집중은 전공(major)으로, 배분은 교양교육(Gen Edu)이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로웰총장이 전공 뿐아니라 교양교육도 강조한 듯 하지만, 그는 양자의 완전한 대칭적 균형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DNA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기억할만 하다.

나. 경성제국대학 예과

1) ‘concentration’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대학에서 조금씩 다른ニュ앙스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major는 잘 정착된 전통적인 학과의 영역에서 탐구를 하는 경우, concentration은 선택한 major의 하위영역으로(예: 영문학/모더니즘 영시), minor는 major의 졸업요건이 약화된 과정을 요구하는 경우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하버드처럼 distribution과 대비하여 도입된 concentration은 major의 개념을 대치한다.

일제 식민지 시절 한반도에서 인가 받은 대학은 1919년 3·1운동의 여파로 1922년 ‘조선교육령’에 의해 세워진 경성제국대학 1개 뿐이었다. 연희전문(연세대), 보성전문(고려대), 이화여전(이화여대)도 사실상 대학교육을 하였지만, 일제는 조선인 대학 졸업생이 많이 배출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억제하였다. 그래서 경성제국대학 역시 재학생 160여명 중 약 3/4은 일본인이었다. 그러다보니 식민지기간을 통털어 조선인 대학졸업생은 불과 810명이었으니 대학만 졸업해도 최고 지식인이 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제국대학은 전공교육에 치중하였지만 3년의 엘리트 고등학교²⁾ 졸업생의 경우 무시험으로 입학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교육은 고등학교-대학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1924년 경성제국대학의 개교시 예과 2년, 본과 3년(의학부 4년)의 기간이었으나 경서제국대학 예과를 차별한다는 비판이³⁾ 제기되면서 1934년에 3년으로 개정되었다. 예과는 요즈음 표현을 빌리자면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으로 이루어진 교양기초교육이다.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 교육과정(숫자는 주당 수업시간)⁴⁾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수신	1	1	1
국어 및 한문	5	5	6
제1외국어	10	9	9
제2외국어	4	4	4
역사	3	5	4
지리	2		
철학개설			3
심리 및 논리		2	2
법제 및 경제		2	2
수학	3		
자연과학	2	3	
체조	3	3	3
계	33	34	34

경성제국대학 예과 이과 교육과정⁵⁾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수신	1	1	1
국어 및 한문	4	2	
제1외국어	9	9	9
제2외국어	3	3	3
라틴어			1
수학	4	4	3
물리	2	2	강의·실험 5
화학	2	2	강의·실험 5

2) 당시 일본에는 전국에 38개의 고등학교가 설치되었는데, 대략 해당 연령대이 0.4~0.5%를 선발하였다. 최종철, 「한국 대학 교양 교육의 역사와 교훈 -서울대 교양과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7년 대학교양협의회/한국교양교육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pp. 5-6

3) 재조선 일본인들이 차별감을 느꼈다는 뜻이다.

4) 제1외국어는 영어, 제2외국어는 독어이지만 학생의 지망에 따라 거꾸로 할 수 있다. 본과는 법문학부이고, 법학과, 철학과, 사학과, 문학과(국어국문학(일어), 조선어조선문학, 영어영문학, 외국어외국문학)이다.

5) 제1외국어는 독어, 제2외국어는 영어이다. 본과는 의학부와 이공학부(1941년 설립)이고, 후자는 물리학, 화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응용화학, 채광야금이다.

식물 및 동물	식물 2	동물 · 식물의 강의 · 실험 4	동물 · 식물의 강의 · 실험 4
심리		2	
역사	2		
법제 및 경제		2	
체조	3	3	3
계	33	34	34

경성제국대학의 경상비는 당시 조선에 있는 10개의 전문학교 경상비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⁶⁾

다. 해방 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교양교육의 전성시기

1949년 12월 31일 공포된 교육법에 따라 대학에 미국식 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핵심은 학년제에서 학점제로의 전환과 함께 필수 교양 교과목제의 도입이었다. 그러나 신생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정부는 당시의 열악한 재정에 비해 많은 예산을 교육에 배정하였으나, 그 중점은 의무교육의 실현이었다. 중·고등교육은 사실상 사학재단에서 담당하였고 정부는 대학교육을 자유방임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부실화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1961년 9월 정부는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 <국·공립대학정비내용>, 11월 <사립대학정비기준>을 공포하면서 부실대학 정리와⁷⁾ 함께 학사운영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대학교육의 중심 역시, 아마도 미국의 대학교육의 영향이 적지 않았겠지만, 교양교육이었다는 사실이다. 연세대학교는 1964년 교양학부를 설치하고 전임교수 15명을 임용하였고, 서울대학교는 1968년 교양과정부를 만들어 문리대, 법대, 상대 및 공대 1학년 학생 모두를 소속시켰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학장회의에서 1년의 교양교육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양과정을 2년으로 연장하면서, 평균 C이상, 50학점 이상의 교양과목 이수를 수료조건으로 명시하였다.

교과목	문과계	이과계
국어	6	6
영어	8	6
제2외국어	6	5
한문	2	-
철학개론	2	2
문화사	2	2
인문·사회과학	10	6
수학 및 자연과학	4	12
체육	4	4
교련	4	4
계	48	47

<표 3> 교양과정부 2년 수료후 교과목별 필수이수 학점(출처: 서울대학교 30년사 p.244)

이보경 교수에 의하면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이 시기에는 대학과 정부가 “상호 소통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선순환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⁸⁾

6) 전봉관, “경성제대 입시 대소동”, 『신동아』, 2005년 12월호

7) 71개의 4년제 대학이 50개로, 679개학과와 정원 91,920명이 532개학과 정원 66,410명으로 감축되었다.

8) 이보경, “정부정책에 따라 부침을 거듭한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교사 직전에 새롭게 부활할 수 있을까?” 『대학교육』, Vol. 190, 2015, p.46

라. 1970년대 실험대학의 실패와 1980년대 학과제 회귀

1970년대 정부는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졸업학점 축소, 능력별 학점취득,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운영, 학부제 혹은 계열별 모집 등 이른바 실험대학을 ‘실험’하면서 학과의 경계를 넘는 학사제도 도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던 학부제가 개방형 학사제도를 정착시키는 데에 실패하면서 교양교육 강화가 전공교육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가져와,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과제로 회귀하기 시작하였다.⁹⁾ 1975년 서울대학교는 교양과정부를 폐지하여 교양교육 담당기관 자체가 사라졌다. 1987년 9월 대학 자율화 실천계획이 발표되었고, 교양교육은 급격하게 전공교육에 종속되기 시작하였다.

마. 교양교육 규제 철폐의 결과

1995년 5월 31일 김영삼 정부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5·31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비롯,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11개의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중에 ‘대학설립·정원·학사 자율화’가 포함되어 있는 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교양교육에 대한 개입은 사라졌다. 현재 총 21조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양’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방송대학에 인문과학부·사회과학부·교육과학부 및 교양과정부를 둔다.”(제20조)는 내용이다. 즉 교양교육 이수학점이나 교육과정 구성은 완전히 대학의 자율에 맡겨졌지만, 이 자율성은 교양교육의 강화나 교양교육의 본령인 자유학예교육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았다. 대학 내에서 가장 힘이 약하지만 대학교육의 40%¹⁰⁾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양교육에 대한 카니발리즘을 불러왔다. 전공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둔갑시키거나, 기초학문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교양교과목을 雜非學으로 채우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다. 이런 기간이 20-30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교수들은 전공에 필요한 예비 교육¹¹⁾ 이외에 교양교육의 의미를 폄하하거나, ‘교양’이란 말의 뜻을 ‘알아서 나쁘지 않은 모든 지식’¹²⁾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기라는 것 자체를 모르게 되었다.

2. 기초학문 위기의 배경

가. 인구학적 배경

현재 기초학문의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된 출산을 저하가¹³⁾ 학령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대학입학정원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가져오고, 취업률이

9) 1985년 100개 대학의 407개 학과가 1990년에는 107개 대학의 491개 학과로, 그리고 1994년에는 131개 대학의 557개 학과로 세분화 되었다. 위 이보경의 글 참조. 1990년대에 다시 학부제 열풍이 불었으나, 그것은 교양교육의 강화와는 거리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대학 입학 후 전공선택 기간을 주겠다는 것이 학부제의 기본 발상일 뿐이다.

10) 졸업학점 대비 교양 최저 이수학점은 대략 30%를 넘었고, 이외에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교양과목을 포함하면, 총 4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11) 예를 들어 공학인증을 도입한 전공에서는 교양과목을 ‘전문교양’이라는 형용모순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학 관련 과목으로 지정하는 일이 빈번하다.

12) 한때 교양 교과목명의 연성화가 유행하면서 이런 경향이 심해졌다.

13) 1970년대 4.5명에서 1985년 2명으로, 2005년 거의 1명으로 떨어졌고, 2010년부터 대략 1.25명을 유지하고 있다.

낮은 기초학문 학과들의 지망생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학적 변화는 위기의 촉발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학입학정원의 축소로 모든 학문이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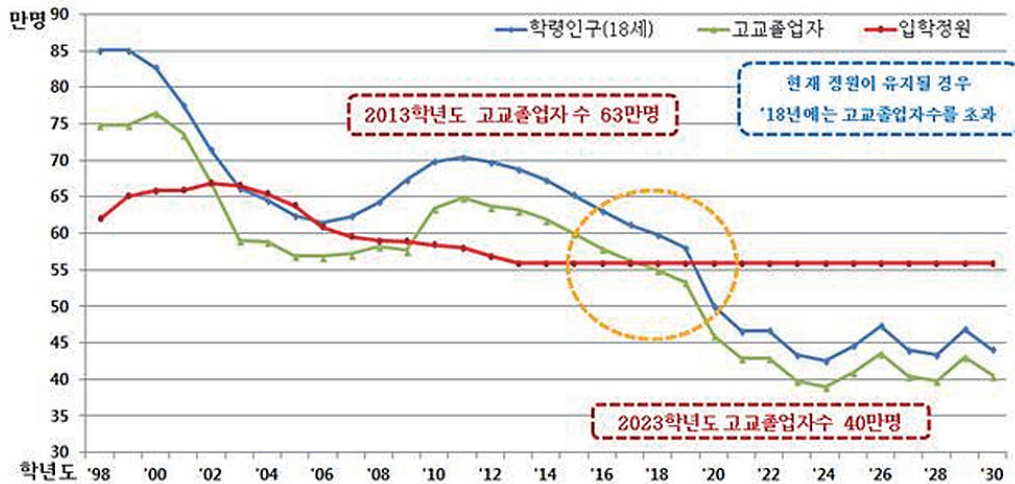


그림 1 대학입학 자원과 정원(출처: 교육부(2014.1.28.)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보도자료)

나. 기초학문 수요-공급 불균형

따라서 18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기초학문의 위기를 논할 때는 사회의 수요와 대학이 배출하는 기초학문 전공자 간의 불일치, 즉 공급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대학구조조정 필요성의 직접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014-2024년 전공별 중분류 단위 전망			
	인력공급(A)	구인인력수요(B)	차이(A-B)	초과비율(A-B/B*100%)
언어·문학	234	168	66	28.2
인문과학	122	86	36	29.5
사회과학	258	183	75	29.1
경영·경제	507	385	122	24.1
생물·화학·환경	183	120	63	34.4
수학·물리·천문·지리	74	65	9	12.2
전체	1378	1007	371	26.9

표 4 인력 공급초과 학문 영역

그러나 기초학문의 경우 사회적 수요의 부족에는 다른 분야의 학문과는 달리 기초학문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 특징이 있다. 즉 기초학문으로 볼 수 있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경우 그 기원은 유럽중세 대학의 경우 자유학예교육(Liberal Arts Education)에 있고 이런 교육은 원래 실용적 목적을 지향하였다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iteracy 교육에 해당하는 변증학, 수사학, 문법이 '3가지 길'을 의미하는 트리비움(trivium:tri+via)¹⁴⁾을 구성하였고, 기하학, 대수학, 음악, 천문학 등 numeracy를 요구하는 학문들이 '4가지 길'을 의미하는 콰드리비움(quadrivium)을 구성하였다.¹⁵⁾

14) 영어 'trivial'의 어원이다. 기초학문의 낮은 취업률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적지 않다.

12세기에 그려진 이코노그래피 <환희의 정원(Hortus Deliciarum)>은 중세대학이 구성한 7개 자유학예과목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완전한 원이다. 17세기 이전까지 원은 완전함의 전형이었다. 7개의 자유학예과목은 마치 경주하듯이 하나의 원을 그리고 있다. 교과 과정을 뜻하는 코스(course)와 커리큘럼(curriculum)은 경주라는 모형에서 왔다. 7개의 자유학예과목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全一性이 더 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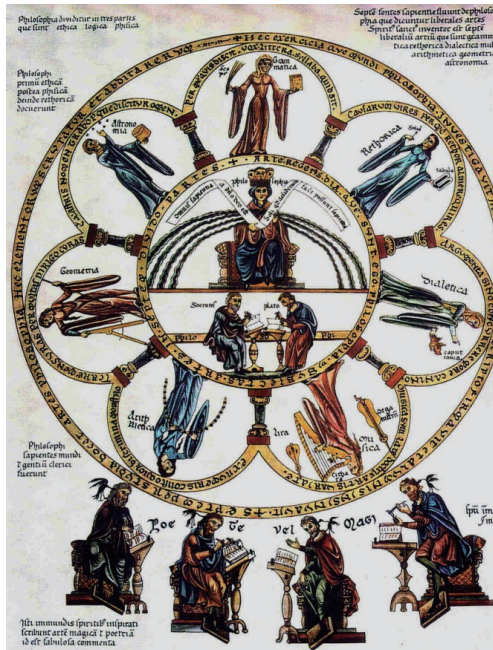


그림 2 자유학예과목의 도상도 <환희의 정원>

트리비움과 콰드리비움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이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모두 위기의 시대에 이런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는 사실, 그리고에 자유학예 교과목은 서로 분리되었다기 보다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전일성은 중세에 대학(universitas)이 설립된 이후 학문의 세분화에 따라 학과(department)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이제는 잊혀진 스토리가 되었지만, 지금 다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학문의 위기에는 돌아봐야 할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기초학문의 위기는, 원래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학문들을 나눈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공 교육과정이지, 마치 공학계열 전공을 연상시키듯, 자기 전공과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들을 통합해야 할 교양교육은 빈사상태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 15) 유럽 중세 대학의 커리큘럼의 골간이 된 콰드리비움과 트리비움은 각각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의 기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플라톤이 제안한 '4개의 길'과 이소크라테스가 제안한 '3개의 길'은 중세 대학에서 7개의 자유학예과목(liberales artes)을 형성하였다. 정치적 실험에 실패한 플라톤은 『국가』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변화와 생성과 무관한 영역에서 요청되는, “생성되는 것에서 실재로 혼을 끌어당기는 교과”로 4개의 교과를 제안한다. 그것은 산술, 기하학, 천문학, 화성학 등 4개의 교과로, 중세 대학에서 4가지 길의 교과와 그대로 일치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아테나이의 부유한 집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사학교를 세운 이소크라테스의 기획은 수사학을 정점으로 말의 규칙을 다루는 문법, 토론하는 능력을 기르는 변증학과 함께 3개의 교과를 형성했다. 그에게 교육이란 자유시민이 만나는場인 아고라(agora)에서 말을 통해서 時宜에 적절하고(kairos), 알맞게(prepon) 분별력을 배양하는 것이었다.

다. 졸업생 취업의 결정 요인: 입학성적

한국에서 대학 졸업생의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은 물론 직업시장의 규모와 방향이 결정적이겠지만, 같은 전공의 경우 대학인지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래의 표는 특수목적 대학을 제외하고 대학원 진학률 9% 이상인 대학 34개에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4개 대학을 뺀 30개 대학의 지표들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입학시 성적수준과 취업률은 거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다.¹⁶⁾ 특히 취업률 하위의 대학 중에는 연구중심대학 II유형은 물론 I유형도¹⁷⁾ 포함되어 있고, 이들 대학의 철학과 물리학 입학생의 점수가 극히 낮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¹⁸⁾ 이점은 왜 일반대학원 중에서 “인문계열 졸업자들의 임금 손실은 69만원으로¹⁹⁾ 가장 크고 비정규직 비율은 59.8%로 대졸취업자들보다 39.7%p 더 높은지”²⁰⁾ 그 답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인다.

대학	유형	연구	교수확보	문과	철학과	이과	물리학과	수능평균	취업률	대학원진학률
A	I	1	20	394	394	385	388	391	71.2	34.8
B	I	3	16.4	388	388	380	379	385	72.3	20.64
C	I	8	14.6	388	385	376	374	383	74.1	21.4
D	II	7	8.6	388	386	373		382	72.8	17.38
E	I	4	17.6	384	385	373	371	381	73.7	18.03
F	I	4	16.1	384	379	369	361	377	69.3	18.5
G	III	13	10.9	379	372			376	68	10.46
H	II	4	14	383		355		369	65.9	9.8
I	II	9	15.1	371	372	348	348	364	64	9.91
J	I	2	15.6	366	379	345	363	363	61.5	22.19
K	III	18	9.3	371	364	345	334	360	63.7	9.18
L	III	25	13.2	365	358	341	329	355	69.1	9.31
M	III	41	11.1	359		344	334	352	60.8	10.33
N	II	10	14.3	358	352	339	326	350	69.4	10.83
O	II	18	12.2	357		338	324	348	68.3	13.76
P	III	29	15.5	359		331	317	345	66.8	9.85
Q	I	11	9.5	352	338	319	303	336	59.9	10.62
R	II	25	10.6	348		323	303	336	64.8	9.99
S	IV	11	20	344		322		333	68.2	14.8
T	I	15	8	346	330	316	299	331	61.1	13.92
U	III	37	9.8	341	335	299	285	325	67.4	11.56
V	II	31	10.2	340	337	296	275	324	58.3	14.32
W	III	41	14.4	360		269		315	64.4	9.31
X	I	28	12.9	324	312	303	268	313	58.2	9.4
Y	II	37	13.4	335		287	245	311	59.6	9.54
Z	II	29	5.6	323	307	280	263	303	57.4	10.39
AA	II	32	12.2	323	307	276	244	302	56.6	11.75
AB	II	16	20	312	286	269	236	289	57.1	10.04
AC	IV	22	10.6	268		291		280	62.5	12.23

16) 예외 상황은 몇몇 여자대학, 공대 비중이 큰 대학 등이다.

17) 고등교육 지원 예산의 상당부분은 연구중심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18) 다른 한편 초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인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여) 2015년 정시의 경우 <대학인>이 조사한 백분위 배치점수는 383이다.

19) 인문계열 대학 졸업자 월평균 임금 230만원,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161만원이다. 전체 대학원 졸업자들의 월평균임금은 대졸자보다 10만원 정도 낮다.

2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 Issue Brief>, 2013년 28호, “기업체가 직장에서의 경력을 대학원에서 학습하는 것보다 가치 있게 평가함을 의미- 우수한 대학원 졸업인력들이 도피성 대학원 진학자들에게 의해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저평가되는 오점 효과로 인해 임금손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2017학년도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워크숍

AD	II	39	10.3	292	265	260	241	272	55	9.12
이과(수능평균): 치의예과 및 의예과 제외 I:연구중심대학I, II:연구중심대학II, III:교육·연구병행, IV:교육중심 연구: 2015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교수연구 대학순위(41:40위 밖), 교수확보:2015 중앙일보 대학평가 점수(20점 만점) 수능점수: <대학인>의 2015년 정시 자료 취업률: 2014년 대학알리미의 자료, 대학원진학률:2015년 대학알리미의 자료, 회색음영 대학:2016 CORE 사업 선정대학										

<표 5> 대학원 진학률 9% 이상인 30개 대학의 몇몇 지표

즉 기초학문의 위기에는 몇몇 상위권 대학을 제외할 경우, 입학생 수준의 저하가 취업률 저하로 이어지고, 이어서 기초학문이 산업수요 불일치의 온상으로 알려지고, 이것은 지원률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다시 입학생 수준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기 때문이다. 낮은 취업률이 야기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우선 확인해야 할 점은 기초학문과 직장의 업무 일치, 졸업생이 원하는 교육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볼 필요가 있다.

구 분		전혀 맞지 않음	잘 맞지 않음	보통	잘 맞음	매우 잘 맞음
전공 계열	인문	9,009 (27.3)	6,673 (20.2)	7,342 (22.2)	6,889 (20.9)	3,120 (9.4)
	사회	18,775 (17.1)	16,942 (15.4)	30,229 (27.5)	32,597 (29.7)	11,322 (10.3)
	교육	1,685 (6.9)	902 (3.7)	3,107 (12.76)	8,252 (33.88)	10,411 (42.7)
	공학	12,743 (14.1)	13,599 (15.0)	21,978 (24.3)	28,105 (31.1)	14,101 (15.6)
	자연	6,855 (18.6)	4,573 (12.4)	8,170 (22.2)	10,242 (27.77)	7,039 (19.09)
	의약	1,516 (4.4)	1,454 (4.2)	5,703 (16.6)	12,216 (35.5)	13,508 (39.3)
	예체능	9,605 (19.3)	5,015 (10.1)	10,259 (20.6)	15,316 (30.8)	9,525 (19.2)

표 6 2011년 대졸 취업자 일자리 업무내용-전공 일치도(출처:한국고용정보원, 2014.2.228 보도자료)

위 표에서 졸업생의 전공-업무 연계성에 추가하여 취업률을 고려할 경우, 전공교육이 졸업생의 사회생활과 갖는 연계성이 더 낮아질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은 한국의 대학 졸업생의 약 50%가 전공과의 업무 연계성이 낮으며²¹⁾, 이점은 대학과 학과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성적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고, 대학 입학을 위한 교육열이 대학 졸업후 사회생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작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 졸업생들이 '대학에서 더 배웠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질문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대부분 교양기초교육과 관련이 있다.

21) 2015년 OECD 자료에 의하면, PISA(15살 추정)의 경우 수학 1위, 독해 2위, 과학 3위지만, 직장에서의 학업 내용 사용도는 최하위권에 속한다.
<http://www.oecd.org/edu/oecd-skills-outlook-2015-9789264234178-en.htm> (2016.10.13.)

전공계열별 대학 재학시 배웠으면 업무에 도움이 되었을 능력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의사소통능력	6,676 (9.7)	22,575 (32.7)	6,621 (9.6)	11,611 (16.8)	4,915 (7.1)	7,697 (11.2)	8,940 (13.0)
수리통계능력	2,302 (13.7)	6,326 (37.6)	500 (3.0)	3,726 (22.1)	1,831 (10.9)	619 (3.7)	1,532 (9.1)
문제해결능력	3,494 (6.3)	16,826 (30.2)	3,773 (6.8)	15,595 (28.0)	5,400 (9.7)	5,364 (9.6)	5,242 (9.4)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3,691 (7.7)	15,251 (31.7)	2,850 (5.9)	9,714 (20.2)	3,911 (8.1)	4,012 (8.3)	8,738 (18.1)
자원활용능력	797 (6.4)	3,043 (24.2)	958 (7.6)	2,831 (22.6)	1,719 (13.7)	1,698 (13.5)	1,509 (12.0)
대인관계능력	3,014 (6.7)	13,365 (29.5)	3,283 (7.3)	8,643 (19.1)	4,581 (10.1)	5,577 (12.3)	6,835 (15.1)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4,207 (10.9)	11,403 (29.5)	1,661 (4.3)	10,055 (26.0)	4,404 (11.4)	2,813 (7.3)	4,150 (10.7)
기술이해 및 활용 능력	2,654 (4.9)	8,516 (15.7)	1,839 (3.4)	21,321 (39.3)	5,241 (9.7)	6,477 (11.9)	8,231 (15.2)
조직이해	1,381 (8.8)	5,271 (33.4)	1,211 (7.7)	3,795 (24.1)	1,176 (7.5)	1,234 (7.8)	1,700 (10.8)
국제감각	929 (18.4)	2,029 (40.2)	64 (1.3)	890 (17.7)	325 (6.4)	186 (3.7)	620 (12.3)
기타	55 (5.7)	294 (30.3)	17 (1.7)	193 (19.9)	58 (6.0)	233 (24.0)	119 (12.3)

표 7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5. 12

이점은 교양기초교육의 부실이 졸업생 개인은 물론 대학과 국가 전체에 얼마나 큰 출혈인지를 말하고 있다. 앞의 낮은 전공-업무 연계성과 교양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은 단순히 전공선택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21세기 대학교육에서 전공 자체가 갖는 문제와 연결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년이 되기 전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시대에, 그리고 아직 많은 직업들이 개발되어야만 하는 시기에, 어떻게 한 대학생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전공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역량기반 교양 교육과정의 답이 될 수 있다.²²⁾

라.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CORE 사업

기초학문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학생의 교육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대학이 기초학문 존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토대를 강의 수요의 확대가 아니라, 학과소속 학생(수)에 걸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초학문 지망 학생의 수와 수준이 내외의 누적된 요인으로 더 이상 현 상태(status quo)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그동안 대학정원보다 18세 학령인구가 많아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던 문제점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거의 관성으로 학문후속세대 양성이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교육부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기본계획>에 의하면 “향후 10년 내 인문계 교원의 대량 퇴직이 예상되나, 대학에서 교수 충원을 기피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인문학 발전 위협. * 인문계열 전임교원(9,729명)중 50~60대가 54.8%(5,328명)이며, 2025년까지

22) Dennis A. Trinkle, *The Changing Landscape of Higher Education*, <EDUCAUSEREVIEW>, <<http://er.educause.edu/articles/2011/2/the-changing-landscape-of-higher-education>> (2016.05.03.)

지 33.7%가 퇴직 예정('14년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 [사례] 지역거점 국립 A 대학교의 경우 전체 교수를 22명 증원('08년 897명 → '14년 919명)하였으나, 인문계는 14명 감소('09년 91명 → '14년 77명)"이라고 하였다. 인문학 전공의 경우 다수의 정교수에 부교수·조교수 1-2명인 경우가 적지 않다.²³⁾

교육부도 인문학 강의 수요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CORE 사업의 필요조건으로 '전계열 8학점 이상 인문학 교양교육 실시'를 내세웠지만, 이런 방침이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점은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왜냐하면 교양기초교육에서 글쓰기²⁴⁾와 같은 기초교육 이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도입하고 있는 배분이수제도에서 인문학 교양과목을 8학점 이상 교육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의 과목 이수 의무를 없애든지 아니면 교양이수학점을 늘리는 수 밖에 없다. 전자는 다양한 학문을 섭렵하도록 하는 배분이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후자는 바람직하지만 아마도 응용학문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특히 3년 기한의 CORE사업이 종료될 경우, 몇 년간 인문학 교양과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인문학 강의 수요가 지속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CORE 사업의 문제는 더 근본적이다. 기초학문 전공 졸업생의 취업률을 올리기 위하여, 즉 사회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유형으로 도입한 모델의 일부가 反인문학적 발상이라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CORE 사업의 유형으로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²⁵⁾

- A. (글로벌 지역학) 세계 언어권별로 지역에 특화된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 B. (인문기반 융합) 경영, 디자인, IT, CT 등 **실용학문분야와 융합전공** 확대
- C. (기초학문 심화) 외국 대학에 양도되고 있는 **기초학문분야의 우수인재** 양성
- D. (기초교양대학) 전 계열 학생 대상 인문교육 기반의 **기초교육 강화**
- E. **대학 자체 모델**

앞의 A와 B의 모형은 부전공, 복수전공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고 실제로 인문학 전공 학생들 다수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택하고 있다.²⁶⁾ 특히 인문기반 융합 모형의 경우 대학원 과정에서 심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현재 한국 대학에서 전공과 업무와의 불일치 정도를 고려할 때, 이런 식으로 기초학문의 정체성을 바꾸더라도 취업률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른 한편 기초학문 심화 모형은 학문후속세대를 한국에서 양성하자는 취지일뿐, 그들이 박사학위 취득 후에도 전공한 학문을 계속할 수 있는 수요 창출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기초학문 심화는 그 명칭과는 달리 대학원생에게 학비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기초학문 대학원을 회피하는 이유는 학비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위 모델에서 그래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기초교양대학'이라고 보이지만, 인문학은 교양 기초교육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다. 즉 인문학 전공 학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더라도 사회과학, 자연과학 전공의 지원 없이 이 모형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23) 아마 1980년대 중반 대학정원이 폭증하여 임용된 교수들이 대략 5년 내에 퇴임한다.

24) 글쓰기 과목을 인문학 교양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25) 교육부, 「2016년도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기본계획 확정 공고」, 2015.12.23

26) 서울대 인문대 철학과는 부전공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모델구성 형태	수도권 (7)	지방 (9)
글로벌지역학모델, 인문기반융합모델		부산외대
기초학문심화모델, 인문기반융합모델		동아대
인문기반융합모델, 대학 자체모델	가톨릭대	
기초학문심화모델, 대학 자체모델	서울대	
글로벌지역학모델, 기초학문심화모델, 인문기반융합모델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북대, 부경대, 전남대, 전북대
글로벌지역학모델, 인문기반융합모델, 대학 자체모델		계명대
글로벌지역학모델, 기초학문심화모델, 대학 자체모델	서강대	충북대
글로벌지역학모델, 기초학문심화모델, 인문기반융합모델, 대학 자체모델	성균관대	
기초교양대학 모델		가톨릭관동대

〈표 9〉 2016 CORE 사업 선정대학(16개교)

인문학 위기론이 처음 나온 것은 1996년이다. 국·공립대 인문대 학장들이 제주대에 모여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구한 ‘인문학 제주 선언’을 하였고, 그 동기는 정부가 1995년의 학부제 의 도입이었다. 2001년에는 국공립대 인문대학협의회가 인문학 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2001 인문학 선언’을 발표했으며, 2006년에 고려대 문과대 교수들이 ‘인문학 선언문’을, 같은 해 80 여 대학의 인문대 학장들이 이화여대에 모여 ‘오늘의 인문학을 위한 우리의 제언’을, 2012년에는 문·사·철의 27개 학회가 ‘인문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일단 “인문 정신을 상실한 인문학은 인문학의 위기뿐 아니라 인간의 위기를 초래하고 인간 역사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문학자의 주장과 분노에는 충분히 동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문학의 위기들’은 인문학 ‘연구와 교육의 중심이라는 학과’가 존폐 위기에 처할 때, 시장논리, 대학의 상업화, 취업절대주의, 과학과 기술 만능주의, 신자유주의 등을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였다. 적시된 인문학 위기의 주범들의 공통점은 졸업생에 대한 수요 감소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다. 그래도 이런 압력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학령인구가 대학 정원보다 많았고, 상위권 대학의 경우 적성보다는 명문대 인지도를 보고, 중하위권의 경우 낮은 커트라인으로 역시 적성과 무관하게 인문학을 선택하는 일부 학생들이 학과 정원을 채워 주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점은 인문학 위기 선언을 주도하였던 대학들이 2016년 CORE 사업에서 글로벌 지역학이나 인문중심융복합 모델이라는 수요중심 시장논리를 아무런 저항없이 선택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막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소수의 대학들이 과거 20년간 인문계 전공 졸업생에 대한 수요감소와 사회의 대처를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 등으로 비판하면서, 이제 정부의 후원 하에 학문후속세대 시장에서 우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인문학 정신에 속하지는 의문이다. 各自圖生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3. 교양교육의 나아갈 방향

그러나 교양교육의 파행과 기초학문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으며, 그 핵심은 미봉책이 아닌 교육의 정상화에 있다. **교양기초교육을 자유학예교육을 중심으로 재조직함으로써 기초학문의 강의 수요를 대폭 창출하고, 자유학예교육의 본산인 기초학문이 교양기초교육을 담당하여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하는 것이다.** 즉 두 교육의 위기는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냉정하게 보면 다른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교양기초교육은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을까? 2016년 10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장기간의 논의 끝에 ‘교양교육 표준 모델’을 완성하여 공개하였다. 한국 대학의 현실을 고려하되 각 대학마다 교양교육의 전통이나 역사에 대한 무지로 인해 ‘괴물’이 되다시피한 교양 교육과정을 정비하는데 1차적 목표가 있고, 그것은 바로 교양 교육과정을 기초 학문중심으로 재조직하는 일이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기원의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

- **교양교육의 이념:** 교양기초교육이란 대학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 및 자율적 학구능력의 함양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업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이다. 특히 글로벌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상을 맞아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목표	교육과정 내의 담당영역
가. 학문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능력 함양	기초교육
나. 비판적 사고능력,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함양	기초교육
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교양교육
라.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교양교육
마. 공동체意識, 시민정신 함양	교양교육/소양교육
바.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	교양교육/소양교육

<표 10> 교양기초교육의 목표와 교양과정 내의 담당영역

대영역	세부 영역			
[가] 기초교육 영역	① 사고교육 영역: 논리학, 수리·통계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② 정보문해교육 영역: 소프트웨어 문해(Literacy)			
	③ 의사소통교육 영역 I (한국어)			
	④ 의사소통교육 영역 II (영어)			
	⑤ 의사소통교육 영역 III (기타 외국어)			
	⑥ 수학 및 기초과학교육 영역			
[나] 교양교육 영역	A형: 주제별 영역 분류		B형: 학문 분야별 영역 분류	
	과학-기술	①자연 및 과학	인문학	①문학·예술
		②기술의 본성 및 성과		②역사·철학·종교
	인간	③인간의 본성 및 조건	사회과학	
	문화 및 문명	④문화현상과 현대문명		

	현실	⑤사회적 현실		④사회학 · 문화학 · 심리학
		⑥역사적 현실		
	가치	⑦인륜성 탐구와 도덕적 추론	자연과학	⑤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또는 수학, 물질과학, 생명과학으로 구분)
		⑧종교적 가치		
		⑨미적 가치		
[다] 소양교육 영역	①신체적 체험교육			
	②정서적 체험교육			
	③사회적 체험교육			
	④교시 구현/신입생 정착/학생지도			

<표 11> 교기원 교양교육 표준모델의 교양 교육과정 구성

- **기초교육:**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지식 및 기본적인 지적 언어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탐구의 대상을 분석·이해하고, 거기서 문제를 찾아내며;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적 시도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다양한 언어적 매체로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유 주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뿐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이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지적 언어적 훈련이 포함된다. (...) 기본적으로 논리적 비판적 사고 교육, 문헌 독해 및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교육(국어 및 외국어), 자연의 세계 이해를 위한 수학 및 기초과학 교육, 디지털 문명의 자료·정보(Software)를 해독할 수 있는 정보문해 능력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 영역에 속하는 교과목들은 대개 (필수적으로) 1학년 때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상례다. 응용학문에 속하는 특정 전공들의 기초과목은 원칙상 포함될 수 없다.
- **교양교육:** 교양·기초교육과정의 본령이다.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학문적 탐구 성과를 두루 습득함으로써 이 주제 영역에서 제기되는 여러 근본문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 그에 대한 식견을 갖게 하는 교육이다. (...) 따라서 교양교육은 여러 분과학문의 교육을 통해 얻는 특정 영역들의 기본지식을 조망하고 연계시키고 종합할 수 있는 시야와 통찰력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물론 복잡한 사안을 섬세하게 세분하여 명료화시킬 수 있는 분석적 사고 능력,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다시 종합할 수 있는 유기적 총체적 사고 능력, 보편개념을 다뤄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 능력, 부조리를 식별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능력 등의 지적 능력 함양이 그 전제가 된다.
- **소양교육:** 교양교육을 비롯해 대학에서 학문 탐구의 궁극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 전제가 되기도 하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용어를 사용해 본다. '소양(素養)'이란 용어는 『논어』의 "흰 비단을 마련한 후에 그림을 그린다"(繪事後素)는 '인성우선론'(人而不仁如禮何)에서 원용한 것이다. 지성인이 되기 위해 대학생들이 지녀야 할 소양에는 미적 감수성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자질과 공동체적 삶을 가능케 하

는 인애(仁愛), 정의, 배려, 정직 등의 도덕성이 핵심적인 것으로 자리한다. (…)

나. 기초학문의 수요 확대 가능성

교기원 표준 모델은, 소양교육을 제외하면, 기초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교양 교육과정을 재조직한 것이다. 설사 기초학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전공 수업에 필요한 교과목은 전공기초로 간주하여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고질병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전공기초의 교양 잠식’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분식(粉飾) 행위는 교양학점 이수비율과 교양강의 전임비율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좋아진 교양교육 지표는 정부의 각종 대학 지원 정책사업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에 개선이 매우 어렵다.²⁷⁾ 다른 한편 한국의 대학에는 흔히 ‘일반교양’, 때로는 ‘자유교양’이라는 이름의 영역에서 잡다한 강의들이 교양교과목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교양이나 자유교양이라는 분야는 원래 불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수구분이 되야지, 교양교과목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역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공과는 다른 분야의 교과목 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배분이수에도 공학인증을 도입한 전공에서는 전공과 연관된 교과목들을 ‘전문교양’이라는 괴기한 이름을 부처 지정함으로써 스스로 대학교육의 격을 낮추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

발제자가 한 대학의 교양교과목 200여개를 몇몇 교양교육 전문가들과 분석한 결과, 교기원의 표준 모델을 매우 우연하게 적용하여도 약 25%는 당장 폐지하여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만일 ‘교양교육 기초학문의 원칙’을 조금 더 강하게 도입한다면 35% 내외의 교과목들이 교양교과목 자격미달로 폐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문, 사회, 자연의 기초학문 교과목들이 이 부분을 채워야 할 것이다. 즉 기초학문의 강의 수요는 전공과정에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교양교육을 정상화시킴으로써 확대할 수 있다. 강의수요 확대와 관련하여 기초학문의 전공은 레드오션이며, 정상화된 교양교육이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교양기초교육과 기초학문은 결코 적대적일 필요가 없으며, 이제는 손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

다. 교기원 표준 모델의 Liberal Arts College(LAC) 확장성

사실 지금까지의 기술하고 제안한 내용은 일단 리베럴아츠칼리지 도입과는 별개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의 수준으로 볼 때, 교기원 표준 모델이 강조하는 ‘교양교육 기초학문의 원칙’을 지키기만 하여도 대학은 많은 교육 개선을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대학의 교양교과목의 1/4만이라도 기초학문 분야로 바뀔 경우 그 강의 수요는 적지 않을 것이며,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교양교육의 정상화는 기초학문 정상화에 부분적으로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같은 자원으로 이를 수 있는 기초학문 정상화의 주요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교양교육 표준 모델이 어떻게 LAC 도입과 연계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일단 도입된 LAC는 기초학문으로 구성된 교양교육(배분이수) 영역의 교과목들을 담당하여 전 대학의 교양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다.²⁸⁾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볼 점이 있다. 그것은

27) 교기원은 현재 교양 교육과정과 교과목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표면으로 드러난 지표 밑에 있는 교양기초교육의 현실을 반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8) 1975년 서울대학교가 관악산으로 이전하면서 공릉동의 교양과정부를 폐지하였다. 교양교육 전담기관

교기원 표준 모델을 도입하면서 교양교육의 하위 영역을 주제분류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학문분류로 할 것이지의 문제이다. 발제자는 주제분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양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주제분류를 선호할 만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 각 주제별 하위영역에서 구성되는 교양교육소위원회는 교과목 신설시 사전 심사를 하고 추천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례이고 그 위원들은 바로 그 영역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교강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제안은 아니다. 그러나 LAC가 설립되면 바로 이 소위원회를 일종의 학제간 학과(interdisciplinary department) 혹은 통학과(cross department)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교양교육에서 소위원회의 역할과 별도로, LAC 설립 이후 학제간 학과는, 융복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수들 간의 전공을 넘는 만남과 대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LAC에서 전공(major)과 함께 주제 중심의 코스를 개발·관리하고 학생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의 LAC 순위 1위인 윌리엄즈 컬리지(Williams College)는 전공(major)과 평행하게 여러 학과와 학문을 관통·횡단하는 주제의 연구를 위해 집중과정(concentration)²⁹⁾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윌리엄즈 컬리지는 양자 이외에도 독립연구나 학제간 연구, 그리고 자신이 설계하는 전공³⁰⁾들도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하고도 전공 35개와 집중과정 13개를 운영하고 있다.

영역	학문
전공 (35)	American Studies, Anthropology, Arabic Studies, Art (History, Studio), Asian Studies, Astronomy/Astrophysics, Biology, chemistry, Chinese, Classics (Greek & Latin), Comparative Literature, Computer Science, Economics, English, Environmental, Environmental Science, French, Geosciences, German, History, Japanese, Math, Music, Philosophy, Physics, Political Economy, Political Science, Psychology, Religion, Russian, Sociology, Spanish, Statistics, Theatre, Women's, Gender, & Sexuality Studies
집중과정 (13)	Africana Studies,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Cognitive Science, Environmental Studies, Global Studies, Jewish studies, Justice and Law, Latina/o Studies, Leadership Studies, Maritime Studies, Neuroscience, Public Health, Science & Technology Studies

전공과 집중의 이중 방식은 기존의 부전공, 복수전공 방식보다 더 유연하고 한국에서 LAC 도입에도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른바 기초학문 중에서 지금도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비인기 학과의 경우, 전공 이외에 교양교육의 영역과 함께 집중과정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학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교기원 표준 모델을 도입할 때 주제별로 하위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LAC로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교기원의 표준 모델에서 교양영역에 전공과목 중에서 중복설강(double) 가능 과목을 가능하면 풍부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³¹⁾ 그것은 강의의 효율적인 활용과도 관계가 있지만, 기초학문의 경우 교양이건 전공이건 자유학예교육이라는 점에서 정체성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지만, 이후 대학의 교양기초교육을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가 맡아서 하였다. 기본적으로 기초학문이 교양기초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자유학예정신'은 남아 있었다.

29) 앞의 각주4에서 기술하였듯이 이 경우 'concentration'은 하버드대학의 경우와는 다르다.

30) 하버드대학에는 정규 집중과정 이외에 학생이 자기가 설계하는 특별 집중과정(special concentration)이 있는데, 그것은 대략 윌리엄즈 컬리지의 contract major에 해당한다.

31) 이점을 전공기초의 교양과목 잠식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위에서 언급한 중복설강은 전공기초로서 필수적으로 수강하는 과목이 아니다.

이점은 1914년 하버드대학의 로웰 총장의 교육과정 개혁시에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concentration requirements와 교양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distribution requirements의 교과목의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이수제도의 차이를 의미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계열 교양교과목의 경우에는 보편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강의설계가 바람직하고 또 지금 한국 대학의 현실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설강의 필요성은 융복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반선택의 경우에 교양교육에 제공된 강의 이외에도 기초학문의 전공과목 전부가 포함되어도 무방하다. 전공과목의 수강여부는 학생들이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다.

라. 교양교육과 기초학문 연계의 핵심

여기에 교양교육과 기초학문을 연계하여 두 교육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조건이 있다. 그것은 학제간 교양교육(배분이수)에 속하는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전임교수가 설강하고 담당하는 것이다. 이점은 기초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³²⁾, 인문학 진흥사업에서 정부도 반영하고 또 대학도 요구해야 할 점이다. 만일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이 기초학문으로 정상화될 경우, 늘어난 강의수요 모두를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양교육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학문의 역사와 세부 분야를 조감할 수 있는 교수들이 하는 것이 정상이다.

교수들은 교양교육을 위한 엄격한 과목들을 개발하도록 독려되고, 좋은 강의를 할 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교양교과목이 대학이 제공하는 최고의 강의 중의 하나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 교양교육 교수들은 대학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학장은 이들의 강의를 시상하고 이런 교수들에게 가시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뛰어난 교양교육 강의를 하버드대학의 교수직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혹은, 대학본부는 교양교육을 잘 가르치는 교수를 보상하는 교수직을 디자인하고 임용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³³⁾

끝으로 강조할 점은 교양기초교육을 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졸업을 위한 이수조건으로만 간주하는 한, 쉽게 말해 때우고 나가도 되는 계륵으로 이해하는 한, 교양교육의 발전은 없을 것이고 따라서 기초학문의 위기타파도 어려울 것이다. 교양기초교육은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대학교육에서 가져가야 할 수 있는 ‘자산’인 것이다.

32) 「General Education Review Committee Final Report」, “We suggest that Divisional Deans take into account departmental contributions to the General Education Program as part of their annual assessment of a department’s hiring needs. (···) We also encourage the Dean to take into account the needs of Gen Ed when authorizing hires.” p.13

33) 위의 보고서, p.12

